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청소년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최 승 호

2018년 8월

#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청소년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지도교수 박 정 환

최 승 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최승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년 8월

<국 문 초 록>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청소년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최 승 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정 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생활역량에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 외적 환경 요인인 가족건강성과 개인 내적 요인인 회복탄력성의 영향 분석 및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가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아울러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의 심리강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상담적 개입 방안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도 내 7개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84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792부(93.7%)의 자료가 회수되었고, 이 중 무응답 또는 불성실하게 응답자한 87부를 제외한 705부(89.0%)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영주(2004)에 의해 개발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KFSS)’를 유영주 외 3명(2013)이 수정·축소하여 새롭게 개발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Ⅱ(KFSS-Ⅱ)를 사용하였고,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이 청소년 대상으로 개발한 회복탄력성 검사(YKRQ-27)를 사용하였으며, 청소년 생활역량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윤명희, 서

정희(2013)가 228개 문항으로 개발한 청소년 생활역량 진단검사를 실용적 필요성에 의해 윤명희 외 3명(2015)이 다시 내용적·통계적으로 재분석하여 114개 문항을 추출하여 타당도를 확인하고 표준화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청소년 생활역량의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이용,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e의 사후분석을 통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등분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Welch test를 실시하였다.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가족건강성이 청소년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ayes의 Process macro 3.0을 이용해 Bootstrapping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 세 변인에 대한 부모의 종교 유무에 따른 세 변인은 가족건강성 전체 및 하위요인에서만 차이를 보였으며, 부모의 학력에 따른 세 변인은 가족건강성과 생활역량 전체 및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은 각 변인 및 하위요인 간에 높은 수준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가족건강성과 회복탄력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두 변인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셋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생활역량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회복탄력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가족건강성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가족건강성 전체 및 하위요인 특성에 따라 생활역량의 하위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상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배경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회복탄력성 및 생활역량의 차이 및 세 변인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 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청소년 생활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자들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 전반적인 성장을 살필 수 있는 생활역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족건강성과 생활역량의

관계에서 개인의 심리 내적 자원인 회복탄력성 전체 및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의 하위요인이 조절하고 있음을 보인 결과는 낮은 가족건강성으로 인해 청소년의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되거나 성장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생활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생활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적 개입 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생활역량을 높여 청소년기 건강한 성장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요어 : 고등학생, 청소년,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 역량, 조절효과

# 목 차

## 국문초록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5
3. 연구모형 .....	6
<b>II. 이론적 배경</b> .....	7
1. 가족건강성 .....	7
2. 회복탄력성 .....	10
3. 청소년 생활역량 .....	12
4.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 .....	16
5.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및 생활역량의 관계 .....	18
<b>III. 연구방법</b> .....	24
1. 연구대상 .....	24
2. 측정도구 .....	26
3. 자료분석 .....	29
<b>IV. 연구결과 및 해석</b> .....	30
1. 부모의 일반적 특성(종교, 학력)에 따른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 .....	30
2.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 간의 관계 .....	34
3. 가족건강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	41

V. 논의, 결론 및 제언 .....	52
1. 논의 및 결론 .....	52
2. 제언 .....	58
참고문헌 .....	60
Abstract .....	70
부록(설문지) .....	73

## 표 목 차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4
<표 2> 가족건강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6
<표 3> 회복탄력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7
<표 4> 청소년 생활역량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8
<표 5> 부모의 종교 유무에 따른 주요 변인들 간 차이 .....	30
<표 6> 부모 학력에 따른 주요 변인들 간 차이 .....	32
<표 7>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	36
<표 8> 가족건강성과 회복탄력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 .....	37
<표 9> 가족건강성 하위요인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 .....	38
<표 10>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 .....	39
<표 11>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	41
<표 12> 가족건강성-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	43
<표 13> 가족건강성의 가족탄력성-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	45
<표 14> 가족건강성의 상호존중과 수용-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	46
<표 15> 가족건강성의 질적유대감-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	48
<표 16> 가족건강성의 경제적 안정과 협력-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	49
<표 17> 가족건강성의 가족문화와 사회참여-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	50

##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	6
[그림 2] 청소년 생활역량 모델 .....	15
[그림 3]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그래프 .....	42
[그림 4] 가족건강성-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	44
[그림 5] 가족건강성의 가족탄력성-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	45
[그림 6] 가족건강성의 상호존중과 수용-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	47
[그림 7] 가족건강성의 질적유대감-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	48
[그림 8] 가족건강성의 경제적 안정과 협력-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49
[그림 9] 가족건강성의 가족문화와 사회참여-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51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해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사회는 인간으로 하여금 다양하고 전문화된 능력을 요구한다. 현대사회에서는 단순한 정보를 습득하고 익히는 것을 넘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하여 활용하는 능력까지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의사소통능력, 분석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사고, 인간관계능력, 자기관리, 더 나아가 국제시장에 생존하기 위해 세계적인 안목과 적응력 등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윤명희 외, 2013). 이러한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전체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하는 청소년들의 생활전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구조에서 청소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요즘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효율과 경쟁이라는 사회적 압력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휘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과 압박감을 크게 받고 있다. 학교에서는 뚜렷한 대안 없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는 무한경쟁 속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다(전학열, 2011). 또한 급속한 사회변동 속에서 청소년들은 가족이나 또래와의 갈등, 학업이나 사회적 압력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에 적절한 대처를 못하게 될 경우에 자살, 학교폭력, 흡연과 음주, 가출, 비행 등의 다양한 문제행동으로 표출된다(최미숙, 2013). 이러한 개인 및 환경적 위협의 노출은 청소년들의 심리·행동적 문제로 이어져 위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적절한 개입 없이 정상적 발달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단계이다. 발달단계상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와 함께 생리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김성애, 2011)하면서 동시에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고 발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고민하고 갈등하기도 한다(Erikson, 1956). Goethals(1999)에 따르면, 불안정한 시기에 놓인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자신에게 진

행되는 성숙에 적응해야 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전반의 요구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기와 성장의 가능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의 안정된 성장발달을 위해 개인 내적차원을 넘어 거시적 조망 속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의 생활환경 전반으로 두루 살핌이 필요하다.

청소년들도 성인과 동일하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지며,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주체성을 가진 하나의 독립된 개인이다. 즉, 청소년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필요한 언어·행동양식·규범 등을 습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만의 독특한 자아의식을 발달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 속의 한 개인이 되어간다(김정운, 2016). 이는 청소년이 사회적 자원(youth as resource)인 동시에 성인과 함께 미래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도적 존재라는 관점이 강조되면서, 국제적으로 인간의 생애핵심역량 차원에서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생활역량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심은경, 2010).

청소년 생활역량에 대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은 청소년기에 갖추어야 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능력으로 삶에 필요한 자질, 도덕적 기준, 가치관, 태도 등 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상의 생애역량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였다. 윤명희·김진화(2008)는 오늘날 사회적 환경은 생활역량을 발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직업세계에 있어서 생활역량은 직업기초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영(2010)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성공적인 직장생활 수행 및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회적 역량으로 생활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일상생활 혹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여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의 행동과 감정,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역량을 함양시키는 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윤명희·김진화, 2008; 이정자, 2017).

청소년들의 생활역량을 강화하고 안정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일차적 요인으로 가정은 매우 중요한 환경이다. 청소년들은 가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가정의 물리적·심리적 상호 작용을 통해 개인의 생활 안정 및 인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

녀 관계 등의 환경적 요인은 청소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이옥실, 2009). 가족 건강성과 청소년 생활역량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도 살펴본바, 자기조절(라아영, 2016; 유미희, 2010), 자기개발(이금자, 2015; 윤선영, 2015; 탁승현, 2012), 학습(신지은, 2014; 유윤덕, 2010; 오명희, 2007), 대인관계(김성원, 2015; 안영자, 2008), 민주시민(조은경, 2014; 이정우, 김경아, 2002; 강가영, 2014), 문제상황대처(이연미, 2009; 전명희, 2006) 등 대부분의 하위요소들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건강한 가정은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 요소이며,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은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가정이 일차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며 교육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청소년기에 원만한 가정환경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가정의 보호 및 교육기능은 상당히 약화되고 오히려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박지혜, 2011). 가족의 구조적 결손 외에 가정불화, 갈등적 가족분위기, 부모의 방임, 부부갈등, 가족의 낮은 사회적 지위, 경제적 결손, 부모의 거부적·비일관적 양육태도,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 등(신선아, 2011) 가정환경에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이다. 즉, 가정의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없다면 청소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겠지만, 가정의 구조적·기능적 결함은 청소년의 위험수준을 확대시키고 강화시켜 건강한 성장발달에 제한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위기의 결과를 맺는 것은 아니며,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하고 적극적인 대처행동으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다. 예컨대, 2004년에 방영된 MBC ‘사과나무’ 프로그램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자신의 꿈을 위해 나아가는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지원한 많은 사례들(가난한 수재 쌍둥이 자매, 소녀가장 장희, 수동이의 방황 극복기, 불굴의 의지 조아리, 방직공장에서 일하는 재수생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가수 비, 호통판사 천종호, 대우중공업 기능명장 김규환, 팝페라 가수 최성봉 등’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가난한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헤치고 일어나 자신의 삶을 개척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위기청소년들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성공미담 사례들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회복탄력성으로 정의한 연구들을 살펴본 바, 정은주(2017)는 청소년의 내적인 긴장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당면한 문제에 스스로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 Masten(2005)은 위험이나 역경 또는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능력, Luthar(1996)은 청소년의 개인적 속성과 가족 요인, 환경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역동적인 적응과정에서 청소년이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으로 각각 정의했다.

회복탄력성의 기능에 대해, 많은 국외 연구들은 회복탄력성이 부정적 정서를 낮추거나 긍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주관적 안녕감을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세은, 2014). 국내 연구들도 같은 맥락에서 권지은(2003)은 회복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문제가 생길 때,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한다고 하였으며, 박지윤(2017)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이 높다고 하였고, 성동제(2015)는 위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충분히 높이면 진로에 대한 결정이나 성숙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김세은(2014)은 회복탄력성은 여러 문제들에서 기인하는 우울에 대한 예방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고, 박새와(2012)는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적고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고 삶에 긍정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위기와 성장 가능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삶에서 회복탄력성이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청소년들의 삶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개인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이룰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가족건강성과 상호작용하며 생활역량 전반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는 것은 가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청소년 생활역량의 상관관계 및 변인 간 영향력을 살펴보고 가족건강성이 청소년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생활역량에 미치는 가족건강성과 회복탄력성의 기능 및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좀 더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청소년들의 생활역량 증진을 통한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적 개입 방안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청소년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개인의 심리내적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일반적 특성(종교, 학력)에 따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은 어떠한가?

가설 1-1. 부모의 종교 유무에 따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부모 학력에 따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 간의 유의한 영향이 있는가?

가설 2-1.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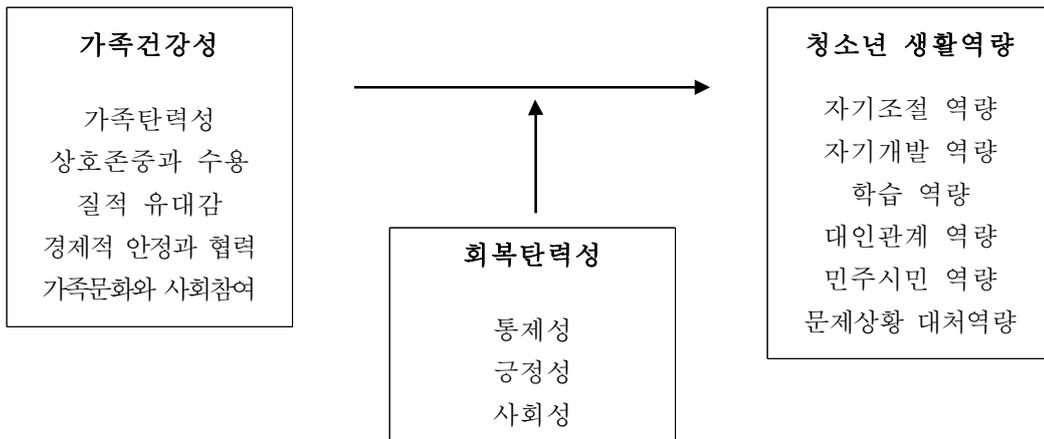
가설 2-2.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회복탄력성은 생활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복탄력성이 조절하는가?

가설 3.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3. 연구모형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청소년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이 조절하여 청소년 생활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Ⅱ. 이론적 배경

### 1. 가족건강성

가정은 인간이 살아가며 환경의 영향을 받는 최초의 장으로서 개인의 발달 및 성장과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개인은 가정을 일차적인 매개로 하여 사회의 기본적인 관습이나 생활습관을 익히며 점차 또래, 학교생활,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한다. 인간 발달의 관점에서 볼 때, 가정은 학교나 사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의 기본터전이 되는 중요한 환경 요인이다.

건강한 가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건강가정기본법(2005)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하였고, 유계숙(2004)은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건강한 정신을 소유하며, 공동체로서 동고동락하는 가족으로, 송경희(2004)는 상호간의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 작용을 통하여 가족의 공동체적, 정서적, 도덕적 관계 향상을 도모하는 가족으로, 권대회, 오윤자(2004)는 가족원 개개인의 자아개발-성취와 더불어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적 유대성이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하는 가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국외의 학자들에 따르면 건강한 가족에 대해 Pratt(1976)은 가족원이 서로 다양하고 규칙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가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광역사회와 유대를 갖으며, 가족원의 개별성을 고무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며, 문제해결 및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는 가족(어은주, 유영주, 1995)이라 하였고 DeFrain과 Olson(2003)은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함께 문제를 극복하며 가족기능이 긍정적인 관계를 가족건강성이라 정의하면서 모든 가정은 잠재적인 성장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건강성을 강조(송미경, 2017)하였다. 또한, Otto(1975)은 가족 개개인의 자원과 잠재력을 발전시켜 가족 집단과 가족원 개개인들의 만족스럽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힘과 역동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가족(조미라,

2015)이라고 하였으며 Williams는 가족 개개인의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용기를 주며 스트레스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가족(이국화, 2012)이라고 하였다.

가족건강성에 대해 우리나라의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이후 건강가족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들이 더욱 활성화 되었다. 어은주와 유영주(1995)는 가족건강성을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규칙적이면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족의 공동체적, 정서적, 도덕적 관계향상을 도모하는 가족이라고 본다. 정현숙과 유계숙(2001)에 의하면, 가족건강성은 가족구성원이 문제나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다음 세대가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김혜신과 김경신(2011)은 가족원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인 가족 간 유대, 의사소통,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가 원만하며,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고, 개개인의 발달을 도모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가족(양영문, 2016)으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가족건강성은 가족을 부분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성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개념으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이 올바르게 적합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가족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영주, 이인수, 김순기, 김희진(2013)의 개념정의에 근거하여 ‘건강한 가족’을 개인의 발달과 자율성을 도모하면서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고 적절한 유대관계를 이룸으로써 가족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가족건강성’은 정서적 유대감을 적절한 수준으로 잘 유지하는 가족이 가족관계를 기능적으로 실행하여 가족 구성원이 행복하고 가족체계로서 각 가족의 상태나 생활주기 등에 맞게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에 대해 국내외 여러 학자들은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Otto(1962)은 상호존중, 가족의 단합, 충성, 상호협력에 관한 관심 등으로 제시하였고, Stinnett & Sauer(1971)은 애정과 감사, 여행을 즐기는 질적 시간, 가족의 몰입정도, 책임감, 긍정적 의사 소통능력, 종교적 태도, 문제위기 대처능력 등으로 제시하였다. DeFrain & Stinnett(2002)은 감사와

애정, 헌신과 의무 수행, 긍정적인 의사소통,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기, 정신적 안녕, 스트레스와 위기관리 등으로 구분하였다. Olson & DeFrain(2003)은 융통성(적응력, 위기대처능력, 신념, 윤리적 가치관 공유, 개방적인 인간관계), 의사소통(감정공유, 칭찬, 협상, 개성 존중, 쾌활함, 유머), 응집성(헌신, 몰입과 질적인 시간, 여가활동, 가족 및 친구들과 교류)으로 분류하였다.

국내 연구들에서는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을 어은주, 유영주(1995)는 가족원 간의 유대,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공유 등으로 구성하였다. 최선희(2001)는 의사소통, 애정과 사랑, 신뢰와지지, 문제해결능력, 부모역할, 자율성, 유연성, 신념체계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유계숙(2004)은 공존적 노력, 긍정적 상호작용, 정신적 건강 등으로 구성하였고 조희금, 박미선(2004)는 기본토대, 가족관계, 가정역할, 사회와의 관계, 가정문화 등으로 제시하였으며 김현주와 이혜경(2011)은 화목한 가정분위기, 갈등조절, 활동 공유 등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영주(2004)는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목표 공유, 역할 충실, 문제해결 능력, 경제적 안정, 사회와의 유대 등으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를 개발했다.

본 연구에서는 유영주(2004)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KFSS)’를 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유영주 외(2013)가 새롭게 개발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Ⅱ(KFSS-Ⅱ)를 사용하였고 다섯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족탄력성은 가족 간의 협력과 표현의 기회 제공 및 유연성을 의미한다. 둘째, 상호 존중과 수용은 가족원 사이의 신뢰와 유대감, 수용적인 분위기를 의미한다. 셋째, 질적 유대감은 가족이 함께 활동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높이는 친밀감을 의미한다. 넷째, 경제적 안정과 협력은 경제적 안정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다섯째, 가족문화와 사회참여는 가족문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도를 의미한다.

## 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역경 혹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행동적, 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해 가는 아동들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심리학적 개념이다(Block & Block, 1980; Block & Gjerde, 1990; 허운영, 2012). 회복탄력성은 환경적 요구에 따라 긴장 인내 수준과 충동통제를 강화하거나 양화시키는 조절능력을 의미하며, 유연하고 풍부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신현숙, 2014).

회복탄력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Rutter(1987)은 심각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는 현상, Garmezy(1983)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것보다 부정적 사건들로부터 이전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회복력, Luthar & Cicchetti(2000)는 전 생애 맥락에서 발달적 통합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개인과 환경 상호작용 맥락에서 시간에 걸쳐 변화하는 특성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임선미, 2016). 또한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은 곤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이라고 하였고, 이해리와 조한익(2005)은 개인 내적 특성과 외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도록 돕는 과정적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 회복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인간의 총체적 능력이라 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상황에 알맞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회복탄력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

회복탄력성의 ‘resilience’라는 용어는 국내에 소개되어 1990년 이후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간호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최은지, 2014; 안선영, 2016).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었다기보다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혼재되어 ‘적응유연성(정인숙, 2007; 안도희, 김지아, 2007)’, ‘탄력성(홍은숙, 2006; 한선영, 2015; 노민지, 2016)’, ‘자아탄력성(김수정;2008, 김진주, 2016)’, ‘회복탄력성(김주환, 2007; 신우열, 외 2009; 이지혜, 2017)’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resilience’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환경적 스트레스나 역경을 이겨내고 변화된 상황에 융통

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고 할 수 있다(홍영희, 2013; 이현정, 2017).

이아라(2013)에 따르면, 최근 회복탄력성의 개념이 기존에 논의되었던 회복탄력성의 특성성에서 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다. Masten(2001)은 회복탄력성이란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진 특별한 특성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위험 환경,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적응기제라고 언급하였다. 홍은숙(2006)은 회복탄력성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희망하고,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평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회복탄력성은 성격적인 특징이 아니라 도전과 변화의 환경에서 개인적인 발달과 긍정적인 적응을 포함하는 하나의 역동적 과정이며(소덕순, 문영희, 2011),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발달적 통합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시간을 따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는 특성이다(Luther & Cicchetti, 2000; 박지윤, 2017). 이러한 개념의 확대는 특별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은 개인에게도 회복탄력성이 의의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회복탄력성이 지지적 환경 맥락 안에서 선천적 요인들과 경험적 요인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시간에 걸쳐 발달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기능이므로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의 정의에 따라 회복탄력성을 어려움에서 적응적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인 ‘회복’과 정신적 저항력의 향상인 성장을 나타내는 개념인 ‘탄력성’을 합친 개념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인을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커뮤니케이션능력, 공감능력 등 9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 3가지의 2차 하위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 3. 청소년 생활역량

#### 가. 생활역량

역량(competency, competence)은 본래 직업교육이나 훈련 분야, 성인교육분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강조한 개념으로, 특정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된 능력을 말한다(소경희, 1999). 역량(competency)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또는 기량’으로 정의되고 역량과 유사한 의미의 단어로 ‘능력(ability)’과 ‘기술(skill)’이 사용되고 있다. 능력은 ‘어떤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을 말하며, 기술은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 능력, 기묘한 솜씨, 재주’ 등을 말한다. 이를 볼 때, 역량은 능력과 비슷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기술은 어떤 세부적인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으로 능력의 하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윤명희, 김진화, 2008).

학문적 논의에 역량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연구자는 White(1959)이다. White는 역량을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타고나는 것이 아닌 길러지고 학습될 수 있는 특성으로 보았다(장아름, 2008; 이명희, 2009). 이후 심리학자인 McClelland(1973)은 역량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학문적인 쟁점으로 역량의 개념을 부각시켰으며, 현장에서 우수한 직무성적을 예측하게 하는 개인 특성으로 실제 상황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평범한 수행자와 구분되는 우수한 수행자 특성으로 정의했다.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더 살펴보면, Boyatzis(1982)는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동기, 기술, 자아상, 사회적 역할의 한 부분 또는 지식체계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능력으로 이해하였고, Jacobs(1989)는 직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필요한 관찰 가능한 기술이나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Bevan(1996)은 업무 영역에서 새로운 상황에 지식과 기술을 전이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역량에 대해 Parry(1996)는 직무에 있어 중요하고 업무와 관련된 부분인 역할이나 책임, 성과 등에 영향을 주는 지식, 기술 태도의 집합체로, 표준에 의해 측정 가능하고 훈련이나 개발을 통해 향

상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 Mirabile(1997)은 특정 직무에서 뛰어난 수행과 관련이 있는 지식, 기술, 능력으로 정의하였다(장아름, 2008; 윤명희, 서희정, 2013; 반기완, 2015).

한편, 1997년에 시작된 OECD(2001)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에 따르면, 역량은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지식과 인지적·실천적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감정·가치·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행동적 요소를 가동시킴으로써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Rychen, 2003, 윤명희, 서정희, 2013, 재인용). 소경희(2007)에 따르면, DeSeCo 프로젝트는 본래 직업사회의 필요에 의해 등장한 역량의 개념을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된 것뿐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 전체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전 세계적으로 인식시켰다.

국내에서도 개인의 역량에 대한 중요성과 역량의 개념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오지윤, 1999), ‘생활능력’의 개념으로 역량(competence)이 처음으로 사용된 연구는 이병림(1987)의 연구다. 당시, 이병림(1987)은 ‘competence’를 여러 환경에서 경험하면서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으로 정의하고 ‘생활능력’으로 표기하였다. 이후, 같은 맥락에서 노현미 외(1999)와 이지민 외(2005) 연구에서 유아와 아동의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필요한 생활속 전방의 능력으로 생활능력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해 진행된 유현숙 외(2002) 연구에서는 생애를 통하여 육성시켜 주어야 할 핵심능력으로 ‘생애능력’으로 정의되었고, 이중강(2004)의 연구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예술적 등 종합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되었다.

생활과 역량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생활역량(life competency)의 의미로 등장한 본격적인 연구는 윤명희, 김진화(2006)의 ‘청소년 생활역량 진단척도 개발연구’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청소년의 성장과 관련하여 생활역량 개념으로 많은 연구들(장아름, 2008; 윤명희, 김진화, 2008; 이명희, 2009; 조선영, 2010; 반기완, 2015; 이정자, 2017)을 통해 점차 활성화되어 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명희, 서정희(2013)의 연구에 근거하여 생활역량을 ‘개인

이 일상생활 혹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여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의 행동과 감정,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외적인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 나. 청소년 생활역량 모델

21세기 사회에서는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사회발전을 위해서 특히 청소년들의 역량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역량에 대해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려는 학자들의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이정자, 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은 청소년기에 한 개인이 성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적인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능력으로 정규교육을 비롯한 지역사회나 가정에서도 학습될 수 있는 능력인 '청소년기 핵심역량'을 제안하였다. OECD(2001)에서 제안한 지적 도구의 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이라는 역량에 '종합적 사고력'을 추가한 4개의 역량을 하위영역으로 제시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해 학교교육과 학교 밖 활동영역을 '역량 중심 학습체계'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였다(윤명희 외, 2015).

권일남, 김태균(2009)은 개인이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능력을 일깨우고 이를 계발시킬 수 있는 힘으로 활동역량으로 정의하고, 역량이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갖추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청소년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청소년 활동역량'을 제안하였다. 청소년 활동역량의 범주로 자아역량, 갈등조절역량, 문제해결역량, 성취동기역량, 대인관계역량, 리더십역량, 신체건강역량, 시민성역량의 8가지로 제시하였다.

윤명희, 서희정(2013)은 일상생활 혹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여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의 감정,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청소년 생활역량'을 소개하며 청소년이 사회를 살아가는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인이라는 점을 중시하였다.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6개의 하위 생활역량과 이를 함양할 수 있는 실제적인 19개의 생활기술을 추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생활역

량 모델'을 제안하였다.

6개의 하위 생활역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조절역량은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청소년기 다양한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며 주도적인 생활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이며, 자기개발역량은 청소년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함양해야 하는 것으로서, 자발적인 성취동기를 형성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학습역량은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 중 하나인 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하며, 대인관계역량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며 원만한 관계를 형성·유지하고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민주시민역량은 크거나 작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다른 구성원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질을 말하며, 문제상황대처역량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상의 하위 생활역량과 생활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청소년 생활역량 모델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청소년 생활역량 모델

#### 4.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

교육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인간형성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가정환경을 청소년의 성격형성과 문제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으로 보고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윤세은, 2000). 청소년의 적응과 다양한 문제들은 청소년 개인 특성에 중점을 두기보다 가족체계에 따른 유기체적인 접근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김유숙, 2014), 청소년의 적응과 다양한 문제는 가족문제와 직결되므로 가족집단의 특성을 배제한 채 청소년의 문제와 해결점을 찾기 힘들다고 보고하였다(양순미, 유영주, 2003).

이는 가족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어떻게 기능하며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부모는 그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송성자(1996)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있어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일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고, Garmezy(1983)는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견디어 내는 청소년들을 보면 대부분이 부모와 학교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런 지지를 통해 스트레스의 부적 영향이 완화되어 적응적인 대응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유정란, 2004; 재인용).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성을 제시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Stinnett, Chesser & DeFrain(1979)는 종교가 가족건강성의 특성요인으로서 가족관계를 강화시켜 준다고 주장하였으며, Gallup(1979)는 종교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그 자체가 가족관계를 강화시켜 준다고 하였다(윤세은, 2000). 또한 김진희(1989)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과의 대화의 폭이 넓고 자녀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박소영(1995)은 부모의 교육정도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큰 영향을 주고 청소년의 가정과 사회경제 및 문화적 환경과 관계가 깊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기인하는 가정의 일차적인 영향력으로 부모의 일반적 특성 중 종교 유무와 학력을 선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선행연구들을 통해 주요 변인들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의 종교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차이에 대해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 윤세은(2000)의 연구에서는 부의 종교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가족건강성이 높았고 배경의, 김은하(2007)의 연구에서는 부의 종교가 불교나 없을 때보다 기독교일 때 높았고 모의 종교가 불교나 기타일 때보다 기독교일 때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두 연구 모두 공통적으로 종교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가족건강성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추가하여 종교 유무의 따른 가족건강성에 대한 청소년 특성으로 유세은(2000), 한영숙(2006), 양남희, 하운주(2008), 양남희, 홍은실(2011)의 연구들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현우(2015)의 연구를 살펴본 바, 청소년의 종교가 있는 경우 가족건강성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일치된 결과를 보이기도 했으나, 권대회, 오윤자(2004)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에 대해 김진희(1989)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과 대화의 폭이 넓고 자녀들을 보다 잘 이해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윤세은(2000)의 연구에서 부의 교육수준이 고졸, 전문대졸 이상일 때와 모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상일 때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했고 이현우(2015)의 연구에서도 부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일 때와 모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일 때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부모 학력에 따라 가족건강성의 차이가 있다는 대부분의 연구(강희경, 2005; 권대회, 2003; 김경령, 2001; 김혜민, 2011; 양남희, 홍은실, 2011; 윤세은, 2000; 임정아, 2005)결과들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다음으로 회복탄력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바,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연구 대상자의 부모 특성을 포함한 배경변인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보면, 위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살펴본 성동제(2015) 연구에서 성별, 종교, 가족관계(구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을 살펴본 김세은(2014), 양형모(2015)의 연구에서도 성별, 학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박지윤(2017)의 연구에서 종교 유무에서만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보였지만, 사후검정결과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생활역량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청소년들의 성

장 관점에서 배경변인에 따른 일반적인 차이를 살펴본 연구보다 대상 특성에 따른 비교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청소년과 청소년운영위원의 생활역량을 비교한 한 심은경(2011)연구에서는 일반청소년은 상황대처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이 다른 역량에 비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조절역량은 다른 역량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운영위원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상황대처역량과 공동체 역량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아름(2008)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비해 일반청소년들이 자기조절역량, 자기성취역량, 대인관계역량, 공동체역량, 창의성역량, 상황대처역량 등 모든 역량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교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정자(2017)의 연구에서는 학교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역량이 가장 높고 자기조절역량이 가장 낮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역량이 가장 높고 문제상황 대처역량이 가장 낮았으며 두 집단의 차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보다 학교 청소년들의 6개의 하위역량 모두 높았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종교 유무와 학력에 따라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청소년 생활역량 각 주요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5.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및 생활역량의 관계

### 가. 가족건강성과 생활역량과의 관계

청소년들은 가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며, 가정의 물리적·심리적 상호 작용을 통해 개인의 생활 안정 및 인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관계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청소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이옥실, 2008). 이에 가족건강성과 청소년 생활역량 하위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가족건강성과 자기조절역량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라아영(2016)의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과 자기조절력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보였고, 김정희

(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일 때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미희(2010)의 연구에서 가족건강성이 긍정적일수록 모든 자기조절능력 하위영역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한다.

가족건강성과 자기개발역량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금자(2015), 탁승현(2012)의 연구에서 가족건강성이 높으면 진로성숙도가 높게 인식한다는 결과는 자기개발역량의 진로탐색기술과 관련이 있다. 윤선영(2015)의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을 높게 인식할 때 진로성숙도가 높았으며, 창의적 인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가정의 창의적 환경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자기개발역량의 생활기술들과 관련되어 있다.

가족건강성과 학습역량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건강성과 학업성취도와 정적상관을 이룬다는 연구(임정아, 2005; 유윤덕, 2010)들이 있으며 신지은(2014)의 연구에서도 가족건강성과 학업성취와 관련해 정적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유윤덕(2010)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다는 결과를 나타냈고 심정애(2005), 오명희(2007)의 연구에서도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가족건강성과 대인관계역량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김성원(2015)의 연구에서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이 높으면 중학생의 대인관계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고, 이는 한영자(2008)의 가족건강성이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도 동일하다. 안범희(2010)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개인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으면 가족의 가치체계 수준도 높아지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공통적으로 가족건강성이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의 흐름이 동일하다.

가족건강성과 민주시민역량의 관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조은경(2014)의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이 높으면 기본질서를 잘 지키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관한 윤미경(2007)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배경변인과 민주시민 의식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고 도덕적 신념과 가치관은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정우, 김경아(2002)는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을 분

석하면서 가정 내 청소년 자녀에 대한 예절교육 및 생활 속 실천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밑거름이라고 하였다. 홍재화(2005), 장소영(2012), 김위정(2012), 강가영(2014)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경험할수록 아동의 공동체의식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민주시민역량의 공동체참여기술과 관련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건강성과 문제상황 대처역량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건강성과 휴대폰 중독을 상관관계를 분석한 전명희(2006)와 이연미(2009)의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이 낮은 집단에서 휴대폰 중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명희(2006)의 연구에서 도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연구(김경신, 김진희, 2003; 유영민, 2000; 박정은, 2001)들에서도 동일한 결과들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들은 문제상황 대처역량의 하위기술인 매체중독대처기술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가족건강성이 청소년 생활역량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청소년의 생활역량 전반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건강성은 필수적 요소이며,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의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겠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생활역량에 미치는 가족건강성의 구체적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 나. 회복탄력성과 생활역량과의 관계

회복탄력성과 자기조절역량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배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최상복(2017)의 연구에서는 자기조절과 회복탄력성은 유의한 상관이 있고 하위요인 모두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자기조절역량의 신체관리기술과 연결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김혜경(2016)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과 자기조절력 간에는 높은 상관을 보였고 하위요인 간에도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된 무기력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이은경(2017)의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의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회복탄력성을 높이면 학습된 무기력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현경(2012)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자기조절능력도 높아진다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대상은 다르지만 위의 연구 모두 회복탄력성의 자기조절역량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회복탄력성과 자기개발역량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박지윤(201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이 높다고 하였고,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동제(2015)의 연구에서도 회복탄력성을 충분히 높이면 진로에 대한 결정이나 성숙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했다. 회복탄력성과 창의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최미정(2016)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기개발역량의 하위요인 창의성개발기술과 연관되어 진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회복탄력성이 자기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회복탄력성과 학습역량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정숙(2016)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과 자기주도학습 관계에서 높은 정적 상관을 이뤄 회복탄력성 점수가 높아지면 자기주도학습 점수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정종철(2013)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자기주도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하위요인의 탄력성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두 연구 모두에서 같은 흐름의 결과를 나타냈다.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역량 간 관계를 살펴보면, 임상희(2005)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적극적이며 사회지지 추구적인 대처행동을 보임으로써 보다 긍정적이며 유연한 대처행동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권지은(2003)은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문제해결 방식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회복탄력성과 민주시민역량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수인(2017)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학습공동체 참여가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공동체 참여와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성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영민(2018)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회복탄력성이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적 상관을 나타내 회복탄력성이 시민성 함양에 필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회복탄력성과 문제상황 대처역량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박순영(2013)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경향에서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고 김영경(2013)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도박행동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지연(2017)의 연구에서도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회복탄력성과 문제상황 대처역량의 하위요인들과 관련된 문제 원인들과 부적 상관이 있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회복탄력성이 청소년 생활역량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회복탄력성 전체 및 하위요인들이 청소년 생활역량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다.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및 생활역량의 관계

가족은 인간이 출생 후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집단이자 일차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이기에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가족은 일차적인 연관성과 책임을 갖는다(최미숙, 2013). 가정이 인간 개개인의 사랑과 안정,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문적 기능을 보유하며 그 욕구가 인간본질의 욕구와 부합되는 가정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인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필수적이다(유영주, 2001).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초 환경요소로 가족건강성은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위기상황으로 가족적 위기, 교육적 위기, 사회적 위기 등이 있다(이옥실, 2009). 비행경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지각한 문제영역으로 가정 및 가족문제를 꼽았다(구본용, 2005). 결손, 이혼, 별거, 재혼과 같은 가족 형태의 변화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음주, 폭력문제 등은 가족기능의 약화를 가져오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주요한 예측요인이다(권해수 외, 2008). 열악한 가정환경의 청소년들은 일상적 환경의 청소년보다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 수준은 높고 강도도 그만큼 크다.

하지만,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위기의 결과를

맞는 것은 아니며,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하고 적극적인 대처행동으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으로 회복탄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적고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고 삶에 긍정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박새와, 2012).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 내적 심리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은 청소년들의 삶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개인의 성장발달에 긍정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일차적 환경에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가정요인인 가족건강성에 대해 잠재적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를 보완하고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도울 수 있는 심리적 변인으로 회복탄력성을 조절변인으로 하여 청소년 생활전반에 필요한 생활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 내 7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8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부장, 교사 등 학교별로 설문을 의뢰한 분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요청하거나 또는 동의를 구한 후 직접 학생들에게 배부한 후 바로 수거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시간은 25~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총 84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792부(93.7%)를 회수하였고, 이 중 무응답 또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87부를 제외하고, 총 705부(89.0%)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와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05)

		N	%
성별	남자	327	46.4
	여자	378	53.6
학년	1학년	333	47.2
	2학년	234	33.2
	3학년	138	19.6
종교(부)	유	250	38.5
	무	400	61.5
종교(모)	유	322	48.8
	무	338	51.2
종교(본인)	유	210	30.9
	무	469	69.1
학력(부)	중졸이하	29	4.5
	고졸	254	39.5
	대졸	326	50.7
	대학원이상	34	5.3
학력(모)	중졸이하	25	3.9
	고졸	244	38.4
	대졸	339	53.4
	대학원이상	27	4.3

<표 1> 계속

(N=705)

변수	구분	N(%)	변수	구분	N(%)			
					부	모	본인	
성별	남	327(46.4)	종교	기독교	47(6.7)	73(10.4)	88(12.5)	
	여	378(53.6)		불교	170(24.1)	195(27.7)	82(11.6)	
학년	1학년	333(47.2)		천주교	29(4.1)	50(7.1)	33(4.7)	
	2학년	234(33.2)		없음	400(56.7)	338(47.9)	469(66.5)	
	3학년	138(19.6)		기타	4(0.6)	4(0.6)	7(1.0)	
				무응답	55(7.8)	45(6.4)	26(3.7)	
경제 수준	하(기초수급)	31(4.4)		부모 교육 수준	초등 졸업	7(1.0)	7(1.0)	
	중하	91(12.9)			중등 졸업	22(3.1)	18(2.6)	
	중	358(50.8)			고등 졸업	254(36.0)	244(34.6)	
	중상	184(26.1)			대학 졸업	326(46.2)	339(48.1)	
	상	38(5.4)	대학원 이상		34(4.8)	27(3.8)		
	무응답	3(0.4)	무응답		62(8.8)	70(9.9)		
가족 형태	부모	94(13.3)	부모 직업	전문/관리직	165(23.4)	94(13.3)		
	부모+형제자매	415(58.9)		농어민	68(9.6)	40(5.7)		
	부(모)+형제자매	111(15.7)		사업/자영업	139(19.7)	100(14.2)		
	친부(모)+계모(부)	3(0.4)		사무직	94(13.3)	100(14.2)		
	친부(모)+계모(부)+형제자매	10(1.4)		기술/생산직	36(5.1)	21(3.1)		
	조부모	9(1.3)		서비스직	57(8.1)	105(14.9)		
	조부모+형제자매	6(0.9)		단순노무직	28(4.0)	32(4.5)		
	친척	1(0.1)		무직/주부	18(2.6)	115(16.3)		
	형제자매	6(0.9)		기타	22(3.1)	31(4.4)		
	혼자	4(0.4)		무응답	78(11.1)	67(9.5)		
	친구 or 선후배	1(0.1)						
	청소년보호시설	3(0.4)						
	기타	3(0.4)						

## 2. 측정도구

### 가. 가족건강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영주(2004)에 의해 개발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KFSS)’를 유영주 외 3명(2013)이 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축소하여 새롭게 개발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Ⅱ(KFSS-Ⅱ)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탄력성 7문항, 상호 존중과 수용 5문항, 질적 유대감 4문항, 경제적 안정 3문항,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3문항으로 총 22문항,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영주 외 3명(2013)은 척도 개발 시 구인타당도 및 준거타당도를 검증하여 각 요인별 신뢰도(Cronbach  $\alpha$ )는 가족탄력성 .91, 상호 존중과 수용 .87, 질적 유대감 .82, 경제적 안정 .79,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65 등을 나타냈으며 전체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족건강성 척도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가족건강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705)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 $\alpha$
가족탄력성	7	9, 11, 12, 14, 15, 16, 20	.83
상호 존중과 수용	5	1, 2, 3, 4, 6	.92
질적 유대감	4	7, 8, 18, 19	.89
경제적 안정과 협력	3	5, 13, 21	.83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3	10, 17, 22	.73
전체	22		.95

## 나. 회복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이 청소년 대상으로 개발한 회복탄력성 검사(YKRQ-27)를 사용하였으며 본 척도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다양한 문항들을 참고하여 번역이 잘못되거나 어색한 것을 수정하여 새로이 개발한 것이다. 회복탄력성을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의 3가지 요소 아래 각각 3개 유형씩 전체 9가지 유형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하위유형은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커뮤니케이션능력, 공감능력 등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의 연구에서 측정한 신뢰도(Cronbach  $\alpha$ )는 .72~.7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회복탄력성 척도의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회복탄력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705)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 $\alpha$
통제성	9	1, 2, 3, 4, 5, 6, 7, 8, 9*	.79
긍정성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84
사회성	9	19*, 20*, 21*, 22, 23, 24, 25, 26, 27	.82
전체	27		.95

\*는 역채점 문항

#### 다. 청소년 생활역량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생활역량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윤명희, 서정희(2013)가 228개 문항으로 개발한 청소년 생활역량 진단검사를 실용적 필요성에 의해 윤명희 외 3명(2015)이 다시 내용적·통계적으로 재분석하여 114개 문항을 추출하고 개별 문항 및 검사도구의 양호도, 요인구조의 적합도 등을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고 규준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19개의 생활기술들이 자기조절역량, 자기개발역량, 학습역량, 대인관계역량, 민주시민역량, 문제상황대처역량 총 6개의 하위 생활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검사에 대한 신뢰도(Cronbach  $\alpha$ )는 0.97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 생활역량별 신뢰도는 자기조절역량 0.84, 자기개발역량 0.93, 학습역량 0.90, 대인관계역량 0.93, 민주시민역량 0.86, 문제상황대처역량 0.82로 나타났다(윤명희 외, 2015).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생활역량 진단검사 신뢰도는 <표 4>과 같다.

<표 4> 청소년 생활역량 진단검사 신뢰도 (N=705)

생활역량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alpha$
개인적 역량	자기조절역량	24	Ⅲ-1. 1~24	.86
	자기개발역량	24	Ⅲ-2. 1~24	.94
	학습역량	18	Ⅲ-3. 1~18	.93
사회적 역량	대인관계역량	24	Ⅲ-4. 1~24	.94
	민주시민역량	12	Ⅲ-5. 1~12	.89
복합적 역량	문제상황대처역량	12	Ⅲ-6. 1~12	.78
전 체		114		.97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을 위해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각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청소년 생활역량의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e의 사후분석을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Levene 등분산 검정에서 등분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분산 검정인 Welch 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과 청소년 생활역량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족건강성과 회복탄력성이 청소년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가족건강성이 청소년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ayes의 Process macro 3.0을 이용해 Bootstrapping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

#### 가. 부모의 종교 유무

고등학생 청소년의 부모의 종교 유무에 따른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 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고, 세 변인 중 가족건강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5> 부모의 종교 유무에 따른 주요 변인들 간 차이 (N=650(부), 660(모))

척도	하위요인	구분	유		무		t	비고
			M	SD	M	SD		
가족 건강성	가족탄력성	부	27.38	5.90	26.36	5.96	2.129*	†
		모	27.18	5.34	26.30	6.40	1.923	
	상호존중과 수용	부	20.71	3.79	20.01	4.04	2.208*	
		모	20.64	3.80	19.88	4.07	2.469*	
	질적 유대감	부	14.50	3.79	13.65	3.87	2.764**	
		모	14.37	3.72	13.53	3.95	2.810**	
	경제적 안정과 협력	부	11.93	2.23	11.48	2.28	2.505*	
		모	11.84	2.15	11.37	2.40	2.675**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부	9.85	2.68	9.24	2.51	2.915**	
		모	9.78	2.53	9.11	2.61	3.347**	
	전체	부	16.87	3.19	16.15	3.28	2.784**	
		모	16.76	3.06	16.04	3.39	2.878**	
회복 탄력성	통제성	부	32.35	5.14	32.17	4.68	.461	
		모	32.37	4.92	32.01	4.70	.963	
	긍정성	부	34.55	5.76	33.95	5.65	1.502	
		모	34.29	5.71	33.96	5.67	1.309	
	사회성	부	34.75	4.97	34.15	4.98	1.502	
		모	34.59	4.95	34.06	5.00	1.362	
전체	부	33.88	4.43	33.42	4.24	1.330		
	모	33.75	4.33	33.34	4.28	1.211		

$p^* < .05$ ,  $p^{**} < .01$ ,  $p^{***} < .001$ , † 이분산 가정, Welch test

청소년 생활 역량	자기조절	부	76.02	13.18	75.82	12.70	.193	
	역량	모	76.35	12.64	74.95	13.05	1.394	
	자기개발	부	83.74	16.81	83.33	14.56	.315	†
	역량	모	84.12	15.28	82.71	15.40	1.176	
	학습역량	부	62.69	13.17	62.76	11.98	-.074	
	역량	모	63.02	11.93	62.27	12.75	.785	
	대인관계	부	91.71	13.66	90.61	12.61	1.054	
	역량	모	91.11	13.14	90.66	13.02	.444	
	민주시민	부	45.72	7.83	45.37	6.75	.577	†
	역량	모	45.60	7.46	45.21	6.91	.696	
	문제상황	부	39.45	7.29	39.47	6.62	-.031	
	대처역량	모	39.45	6.85	39.32	6.73	.247	
	전체	부	66.55	9.88	66.22	8.94	.437	
	모	66.61	9.15	65.85	9.34	1.048		

$p^* < .05$ ,  $p^{**} < .01$ ,  $p^{***} < .001$ , † 이분산 가정, Welch test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건강성 전체는 부( $t=2.784$ ,  $p < .01$ )-모( $t=2.878$ ,  $p < .01$ )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가족건강성 하위요인 중 가족탄력성은 부( $t=2.219$ ,  $p < .05$ )에서만, 상호존중과 수용은 부( $t=2.208$ ,  $p < .05$ )-모( $t=2.249$ ,  $p < .05$ ) 모두에서, 질적 유대감은 부( $t=2.764$ ,  $p < .01$ )-모( $t=2.810$ ,  $p < .01$ ) 모두에서, 경제적 안정과 협력은 부( $t=2.505$ ,  $p < .05$ )-모( $t=2.675$ ,  $p < .01$ ) 모두에서, 가족문화와 사회 참여는 부( $t=2.915$ ,  $p < .01$ )-모( $t=3.347$ ,  $p < .01$ )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건강성 전체 및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부모의 종교 유무가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모의 종교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높다고 의미할 수 있다.

#### 나. 부모 학력

고등학생 청소년의 부모 학력의 따른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 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고, 세 변인 중 가족건강성과 생활역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6> 부모 학력에 따른 주요 변인들 간 차이

(N=643(부), 635(모))

척도	하위 요인	구 분	중졸이하(a)		고졸(b)		대졸(c)		대학원이상(d)		F	Scheffe 비교
			M	SD	M	SD	M	SD	M	SD		
가 족 건 강 성	가족 탄력성	부	26.59	6.27	26.19	6.26	27.02	5.70	27.29	6.47	1.039	
		모	25.76	6.13	26.64	6.10	26.81	5.90	28.41	4.96	.968	
	상호존중과 수용	부	19.45	4.47	20.15	4.01	20.35	3.89	19.76	4.21	.654	
		모	19.56	4.91	20.19	3.85	20.29	4.04	20.93	3.57	.536	
	질적 유대감	부	13.97	3.91	13.30	3.71	14.26	3.94	14.85	3.95	3.708*	d>b
		모	12.88	4.19	13.64	3.82	14.16	3.87	15.41	3.17	2.834*	d>a
	경제적 안정과 협력	부	10.66	2.83	11.18	2.26	11.97	2.22	12.56	2.20	9.425***	d>a,b c>a
		모	10.00	2.69	11.30	2.17	11.88	2.29	13.00	1.94	10.949***	d>a,b b,c>a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부	8.93	2.58	8.96	2.53	9.85	2.59	9.74	2.76	6.104***	c>a
		모	8.28	2.67	9.05	2.51	9.81	2.57	10.11	2.65	6.567***	c,d>a
	전체	부	15.92	3.59	15.96	3.16	16.69	3.28	16.84	3.59	2.817*	d>a
		모	15.30	3.62	16.16	3.12	16.59	3.33	17.57	2.75	2.959*	d>a
회 복 탄 력 성	통제성	부	32.17	3.86	32.13	4.83	32.35	4.97	32.71	4.60	.189	
		모	30.48	5.29	32.14	4.58	32.55	4.90	32.33	4.39	1.609	
	긍정성	부	33.45	7.30	33.97	5.42	34.30	5.82	33.85	6.02	2.263	
		모	33.08	7.64	34.07	5.46	34.29	5.78	33.74	5.30	.420	
	사회성	부	34.24	6.09	34.41	4.78	34.44	4.98	34.15	5.52	.047	
		모	32.84	6.81	34.40	4.46	34.62	5.07	33.70	6.02	.720	†
전체	부	33.29	4.82	33.51	4.19	33.70	4.38	33.57	4.46	.145		
모	32.13	5.54	33.54	4.02	33.82	4.39	33.26	4.36	1.332			
청 소 년 생 활 역 량	자기조절 역량	부	70.90	13.39	74.00	12.66	77.04	12.94	78.59	11.55	4.626**	d>a
		모	69.16	11.90	74.60	12.24	76.75	13.19	78.67	11.61	4.072**	c,d>a
	자기개발 역량	부	82.48	18.10	80.92	13.33	84.81	16.55	89.29	13.03	5.894**	d>b †
		모	75.88	13.41	81.70	14.02	85.14	16.04	89.22	13.98	5.878**	c,d>a
	학습 역량	부	60.62	13.04	60.69	11.35	64.01	12.85	66.53	12.39	4.881**	d>a
		모	55.44	11.67	61.32	10.87	64.09	12.97	66.04	12.44	6.200**	c,d>a
	대인관계 역량	부	90.31	9.88	89.97	12.84	91.56	13.37	94.35	12.90	1.510	
		모	88.12	14.13	89.09	11.85	92.48	13.51	94.89	14.04	4.456**	d>a
	민주시민 역량	부	43.72	9.67	44.61	7.23	46.27	6.96	44.91	5.68	3.203*	c>a
		모	44.72	8.13	44.36	7.25	46.17	7.03	46.89	7.50	3.455*	d>b
	문제상황 대처역량	부	37.24	9.23	38.73	6.76	39.81	6.59	40.32	7.07	2.324	
		모	36.44	7.41	38.43	6.46	39.80	6.72	43.26	6.88	6.754***	d>a,b
전체	부	64.21	8.75	64.82	8.33	67.25	9.81	69.00	8.94	4.846**	c,d>a	
	모	61.63	8.20	64.92	8.26	67.41	9.61	69.83	9.37	7.172***	c,d>a	

p\* < .05, p\*\* < .01, p\*\*\* < .001, † 이분산 가정, Welch test

부모 학력에 따른 가족건강성을 분석한 결과, 가족건강성 전체는 부( $F=2.817$ ,  $p<.05$ )-모( $t=2.959$ ,  $p<.05$ )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하위요인 중 질적유대감은 부( $F=3.708$ ,  $p<.05$ )-모( $F=2.834$ ,  $p<.05$ )에서, 경제적 안정과 협력은 부( $F=9.425$ ,  $p<.001$ )-모( $F=10.949$ ,  $p<.001$ )에서 가족문화와 사회참여는 부( $F=6.104$ ,  $p<.001$ )-모( $F=6.567$ ,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분석 결과, 가족건강성은 부의 학력에서 중졸 이하보다 대학원 이상에서, 모의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보다 대학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고, 하위요인 중 질적 유대감은 부의 학력에서는 고졸보다 대학원 이상에서, 모의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 보다 대학원 이상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안정과 협력은 부의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보다 대학원 이상에서, 중졸 이하보다 대졸에서, 모의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보다 대학원 이상에서, 중졸 이하보다 고졸과 대졸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문화와 사회참여는 부의 학력에서는 중졸이하보다 대졸에서, 모의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보다 대졸 이상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부모 학력에 따른 생활역량을 분석한 결과, 생활역량 부( $F=4.846$ ,  $p<.01$ )-모( $F=7.172$ ,  $p<.001$ )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 6 가지 모든 역량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기조절역량은 부( $F=4.626$ ,  $p<.01$ )-모( $F=4.072$ ,  $p<.01$ )에서, 자기개발역량은 부( $F=5.894$ ,  $p<.01$ )-모( $F=5.878$ ,  $p<.01$ )에서, 학습역량은 부( $F=4.881$ ,  $p<.01$ )-모( $F=6.200$ ,  $p<.001$ )에서, 대인관계역량은 모( $F=4.456$ ,  $p<.01$ )에서, 민주시민역량은 부( $F=3.203$ ,  $p<.05$ )-모( $F=3.455$ ,  $p<.05$ )에서, 문제상황 대처역량은 모( $F=6.754$ ,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분석 결과, 생활역량에서 부모 모두의 학력이 중졸보다 대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고,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역량은 부의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보다 대학원 이상에서, 모의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보다 대졸 이상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자기개발역량은 부의 학력에서는 고졸보다 대학원 이상에서, 모의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보다 대졸 이상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학습 역량은 부의 학력에서 중졸 이하보다 대학원 이상에서, 모의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보다 대졸 이상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은 모의 학력에서 중졸 이하보다 대학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민주시민역량은 부의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보다 대졸에서, 모의 학력에서는 중졸보다 대학원 이상에서 높게 나타

났다. 문제상황 대처역량은 모의 학력에서 대학원 이상이 고졸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건강성 전체 및 하위요인 일부와 생활역량 전체 및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의 정도가 높고 생활역량 수준에서도 더 높은 경향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 2.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 간의 관계

### 가.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의 상관관계

고등학생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 간의 상관관계는 <표 7>과 같으며,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과 생활역량 간에는 모두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 전체와 생활역량 전체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정적상관( $r=.541, p<.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과 생활역량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족탄력성은 자기조절역량( $r=.396, p<.001$ ), 자기개발역량( $r=.371, p<.001$ ), 학습역량( $r=.311, p<.001$ ), 대인관계역량( $r=.386, p<.001$ ), 민주시민역량( $r=.431, p<.001$ ), 문제상황 대처역량( $r=.423, p<.001$ )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상호존중과 수용은 자기조절역량( $r=.382, p<.001$ ), 자기개발역량( $r=.362, p<.001$ ), 학습역량( $r=.320, p<.001$ ), 대인관계역량( $r=.412, p<.001$ ), 민주시민역량( $r=.450, p<.001$ ), 문제상황 대처역량( $r=.394, p<.001$ )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질적유대감은 자기조절역량( $r=.405, p<.001$ ), 자기개발역량( $r=.397, p<.001$ ), 학습역량( $r=.348, p<.001$ ), 대인관계역량( $r=.335, p<.001$ ), 민주시민역량( $r=.428, p<.001$ ), 문제상황 대처역량( $r=.451, p<.001$ )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경제적 안정과 협력은 자기조절역량( $r=.339, p<.001$ ), 자기개발역량( $r=.424, p<.001$ ), 학습역량( $r=.400, p<.001$ ), 대인관계역량( $r=.377, p<.001$ ), 민주시민역량( $r=.406, p<.001$ ), 문

제상황 대처역량( $r=.330, p<.001$ )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가족문화와 사회참여는 자기조절역량( $r=.382, p<.001$ ), 자기개발역량( $r=.500, p<.001$ ), 학습역량( $r=.415, p<.001$ ), 대인관계역량( $r=.356, p<.001$ ), 민주시민역량( $r=.419, p<.001$ ), 문제상황 대처역량( $r=.351, p<.001$ )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가족건강성과 생활역량 관계에서 가족건강성 전체 및 하위요인이 높을수록 청소년 생활역량 전체 및 하위역량도 높아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생활역량 전체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정적상관( $r=.731, p<.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과 생활역량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통제성은 자기조절역량( $r=.546, p<.001$ ), 자기개발역량( $r=.602, p<.001$ ), 학습역량( $r=.518, p<.001$ ), 대인관계역량( $r=.608, p<.001$ ), 민주시민역량( $r=.538, p<.001$ ), 문제상황 대처역량( $r=.437, p<.001$ )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긍정성은 자기조절역량( $r=.452, p<.001$ ), 자기개발역량( $r=.509, p<.001$ ), 학습역량( $r=.440, p<.001$ ), 대인관계역량( $r=.507, p<.001$ ), 민주시민역량( $r=.522, p<.001$ ), 문제상황 대처역량( $r=.409, p<.001$ )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사회성은 자기조절역량( $r=.342, p<.001$ ), 자기개발역량( $r=.510, p<.001$ ), 학습역량( $r=.463, p<.001$ ), 대인관계역량( $r=.670, p<.001$ ), 민주시민역량( $r=.503, p<.001$ ), 문제상황 대처역량( $r=.266, p<.001$ )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회복탄력성과 생활역량 관계에서 회복탄력성 전체 및 하위요인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생활역량 전체 및 하위역량도 높아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관분석을 통해 가족건강성과 회복탄력성 모두 청소년 생활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의 과정에서 가족건강성과 회복탄력성이 생활역량에 어떻게 기능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는데, 다중공선성은 VIF 지수를 이용하며 VIF 지수는 1.649~3.899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x	x1	x2	x3	x4	x5	m	m1	m2	m3	y	y1	y2	y3	y4	y5	y5	VIF
x. 가족건강성	1.000																	
x1.가족탄력성	.929***	1.000																3.712
x2.상호존중과수용	.883***	.797***	1.000															3.579
x3.질적유대감	.911***	.796***	.752***	1.000														3.899
x4.경제적안정과협력	.753***	.603***	.587***	.618***	1.000													2.009
x5.가족문화와사회참여	.767***	.598***	.543***	.704***	.628***	1.000												2.291
m. 회복탄력성	.556***	.489***	.581***	.453***	.451***	.402***	1.000											
m1.통제성	.421***	.373***	.413***	.330***	.359***	.339***	.817***	1.000										1.649
m2.긍정성	.554***	.489***	.583***	.476***	.422***	.381***	.850***	.527***	1.000									1.962
m3.사회성	.406***	.353***	.444***	.316***	.344***	.283***	.837***	.551***	.561***	1.000								1.724
y. 생활역량	.541***	.463***	.465***	.472***	.468***	.501***	.731***	.676***	.582***	.580***	1.000							
y1.자기조절역량	.443***	.396***	.382***	.405***	.339***	.382***	.533***	.546***	.452***	.342***	.778***	1.000						
y2.자기개발역량	.458***	.371***	.362***	.397***	.424***	.500***	.644***	.602***	.509***	.510***	.888***	.612***	1.000					
y3.학습역량	.398***	.311***	.320***	.348***	.400***	.415***	.564***	.518***	.440***	.463***	.873***	.575***	.781***	1.000				
y4.대인관계역량	.432***	.386***	.412***	.335***	.377***	.356***	.707***	.608***	.507***	.670***	.810***	.458***	.664***	.650***	1.000			
y5.민주시민역량	.493***	.431***	.450***	.428***	.406***	.419***	.623***	.538***	.522***	.503***	.807***	.536***	.619***	.663***	.670***	1.000		
y6.문제상황 대처역량	.460***	.423***	.394***	.451***	.330***	.351***	.445***	.437***	.409***	.266***	.670***	.570***	.469***	.490***	.412***	.607***	1.000	

p\*\*\*<.001

## 나. 가족건강성과 회복탄력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

변인 간의 영향을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건강성과 회복탄력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가족건강성과 회복탄력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

	<i>B</i>	<i>SE</i>	$\beta$	<i>t</i>	<i>p</i>
상수	53.010	15.017		3.530	<.001
성별(여자)	8.032	3.065	.072	2.620	.009
학년	1.035	2.007	.014	.515	.606
부-종교(유)	-6.468	4.081	-.057	-1.585	.114
모-종교(유)	2.606	4.181	.023	.623	.533
본인-종교(유)	-1.436	3.869	-.012	-.371	.711
부-학력(고졸)	-2.459	7.935	-.022	-.310	.757
부-학력(대졸)	2.980	8.316	.027	.358	.720
부-학력(대학원이상)	8.888	10.548	.037	.843	.400
모-학력(고졸)	5.984	8.766	.052	.683	.495
모-학력(대졸)	15.421	9.083	.138	1.698	.090
모-학력(대학원이상)	27.903	11.787	.103	2.367	.018
가족건강성	.572	.112	.167***	5.093	<.001
회복탄력성	2.788	.140	.644***	19.902	<.001
<i>adjR</i> <sup>2</sup> =.580 <i>F</i> =64.083 <i>p</i> <.001					

가족건강성과 회복탄력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건강성( $\beta=.167$ ,  $p<.001$ )과 회복탄력성( $\beta=.644$ ,  $p<.001$ )은 생활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58%이다.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생활역량이 높아지며, 생활역량에 대해 회복탄력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다. 각 하위요인에 따른 영향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건강성 하위요인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가족건강성 하위요인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 역량		자기개발 역량		학습 역량		대인관계 역량		민주시민 역량		문제상황 대처역량	
	<i>B</i>	$\beta$	<i>B</i>	$\beta$	<i>B</i>	$\beta$	<i>B</i>	$\beta$	<i>B</i>	$\beta$	<i>B</i>	$\beta$
가족 탄력성	.312	.145*	.082	.032	-.008	-.004	.284	.130	.117	.097	.199	.175**
상호존중과 수용	.379	.117	.328	.084	.365	.117	.733	.222**	.408	.224**	.086	.050
질적 유대감	.137	.041	-.223	-.055	-.103	-.032	-.415	-.123	.059	.031	.466	.264**
경제적안정 과 협력	-.049	-.009	.951	.138**	.770	.140**	.798	.138*	.169	.053	-.049	-.016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995	.200***	2.340	.389***	1.443	.300***	.805	.159**	.494	.176**	.136	.052
<i>adjR</i> <sup>2</sup>	.217		.270		.212		.206		.242		.244	
<i>F</i>	9.996***		14.762***		11.012***		10.637***		12.846***		12.993***	

*p*\*<.05, *p*\*\*<.01, *p*\*\*\*<.001

자기조절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건강성의 가족탄력성( $\beta=.145$ ,  $p<.05$ ),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beta=.200$ ,  $p<.01$ )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21.7%이다. 가족탄력성, 가족문화와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자기조절역량이 높아지며, 자기조절역량에 대해 가족문화와 사회참여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기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건강성의 경제적 안정과 협력( $\beta=.138$ ,  $p<.01$ ),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beta=.389$ ,  $p<.001$ )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27.0%이다.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문화와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자기개발역량이 높아지며, 자기개발역량에 대해 가족문화와 사회참여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건강성의 경제적 안정과 협력( $\beta=.140$ ,  $p<.01$ ),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beta=.300$ ,  $p<.001$ )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21.2%이다.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문화와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학습역량이 높아지며, 학습역량에 대해 가족문화와 사회참여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건강성의 상호존중과 수용( $\beta=.222$ ,  $p<.01$ ), 경제적 안정과 협력( $\beta=.138$ ,  $p<.05$ ),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beta=.159$ ,  $p<.01$ )

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20.6%이다. 상호존중과 수용,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문화와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역량이 높아지며, 대인관계역량에 대해 상호존중과 수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경제적 안정과 협력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건강성의 상호존중과 수용( $\beta=.224, p<.01$ ),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beta=.176, p<.01$ )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24.2%이다. 상호존중과 수용, 가족문화와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민주시민역량이 높아지며, 민주시민역량에 대해 상호존중과 수용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상황대처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건강성의 가족탄력성( $\beta=.175, p<.01$ ), 질적유대감( $\beta=.264, p<.001$ )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24.4%이다. 가족탄력성, 질적유대감이 높을수록 문제상황대처역량이 높아지며, 문제상황대처역량에 대해 질적유대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 역량		자기개발 역량		학습 역량		대인관계 역량		민주시민 역량		문제상황 대처역량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통제성	1.174	.440***	1.235	.384***	.798	.309***	.914	.338***	.410	.273***	.482	.340***
긍정성	.501	.224***	.560	.207***	.357	.165***	.175	.077*	.315	.250***	.319	.268***
사회성	-.030	-.011	.611	.195***	.599	.238***	1.147	.435***	.341	.233***	-.056	-.040
<i>adjR</i> <sup>2</sup>	.351		.351		.375		.544		.397		.271	
F	23.938***		35.691***		26.458***		51.657***		28.951***		16.761***	

$p^* < .05, p^{**} < .01, p^{***} < .001$

자기조절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통제성( $\beta=.440, p<.001$ )과 긍정성( $\beta=.224, p<.001$ )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35.1%

이다. 통제성, 긍정성이 높을수록 자기조절역량이 높아지며, 자기조절역량에 대해 통제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통제성( $\beta=.309, p<.001$ ), 긍정성( $\beta=.165, p<.001$ ), 사회성( $\beta=.238, p<.001$ )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이 높을수록 자기개발역량이 높아지며, 자기개발역량에 대해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습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통제성( $\beta=.309, p<.001$ ), 긍정성( $\beta=.165, p<.01$ ), 사회성( $\beta=.238, p<.001$ )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37.5%이다.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이 높을수록 학습역량이 높아지며, 학습역량에 대해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통제성( $\beta=.388, p<.001$ ), 긍정성( $\beta=.077, p<.05$ ), 사회성( $\beta=.435, p<.001$ )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54.4%이다.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역량이 높아지며, 대인관계역량에 대해 사회성, 통제성, 긍정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통제성( $\beta=.273, p<.001$ ), 긍정성( $\beta=.250, p<.001$ ), 사회성( $\beta=.233, p<.001$ )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이 높을수록 민주시민역량이 높아지며, 민주시민역량에 대해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제상황대처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통제성( $\beta=.340, p<.001$ ), 긍정성( $\beta=.268, p<.01$ )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27.1%이다. 통제성, 긍정성이 높을수록 문제상황대처역량이 높아지며, 문제상황대처역량에 대해 통제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가족건강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변인 간의 영향을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건강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정하였다. 조절효과 검정은 Hayes의 Process Macro를 이용한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검정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Mean Centering(평균중심화)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그리고 두 변수의 곱인 상호작용항으로 분석하였다.

#### 가.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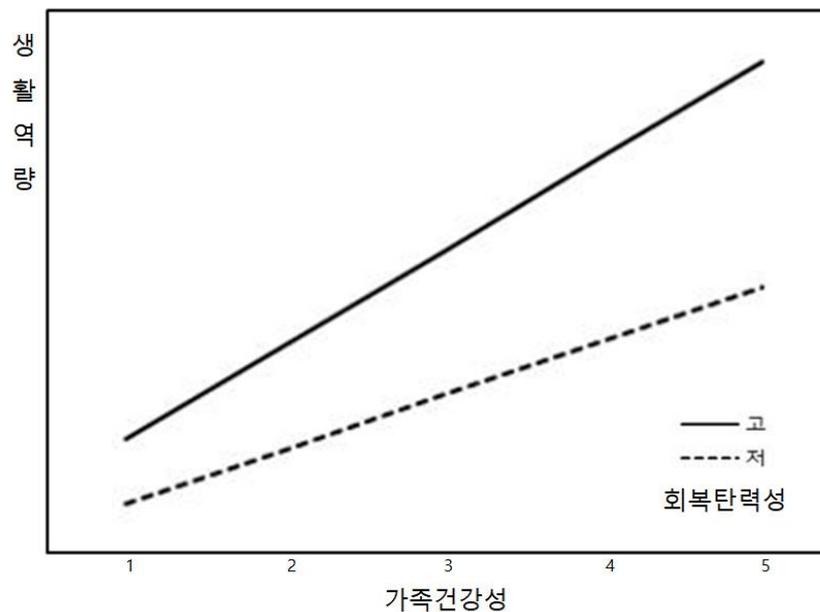
가족건강성과 회복탄력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표 11>와 같다.

<표 11>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i>B</i>	<i>SE</i>	<i>t</i>	<i>p</i>	95% CI	
상수	379.158	9.750	38.887	<.001	360.008~	398.309
성별(여자)	.586	.112	5.225	<.001	.366~	.806
학년	2.787	.140	19.955	<.001	2.512~	3.061
부-종교(유)	.014	.006	2.196	.028	.001~	.026
모-종교(유)	8.540	3.064	2.787	.005	2.523~	14.558
본인-종교(유)	.742	2.005	.370	.712	-3.196~	4.679
부-학력(고졸)	-6.485	4.068	-1.594	.111	-14.474~	1.505
부-학력(대졸)	2.494	4.168	.598	.550	-5.692~	10.680
부-학력(대학원이상)	-1.760	3.859	-.456	.649	-9.339~	5.820
모-학력(고졸)	-2.023	7.912	-.256	.798	-17.563~	13.516
모-학력(대졸)	2.761	8.290	.333	.739	-13.520~	19.043
모-학력(대학원이상)	8.769	10.514	.834	.405	-11.881~	29.419
가족 건강성( <i>X</i> )	7.558	8.766	.862	.389	-9.659~	24.775
회복 탄력성( <i>Mo</i> )	16.928	9.079	1.865	.063	-.903~	34.760
<i>XMo</i>	29.762	11.779	2.527	.012	6.628~	52.896
		$R^2=.593$	$F=60.242$	$p<.001$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 집단과 저 집단은 회복탄력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고 집단(M+SD)은 회복탄력성 평균보다 1표준편차만큼 높은 집단이고, 저 집단(M-SD)은 회복탄력성 평균보다 1표준편차만큼 낮은 집단이다.

가족건강성과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타나( $p=.012<.05$ )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59.3%이다. 회복탄력성( $B=29.762$ )이 높아질수록 가족건강성( $B=7.558$ )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양의 영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에서와 같이 회복탄력성이 높은 고 집단이 저 집단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생활역량이 높아지는 정도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그래프

#### 나. 회복탄력성 하위요인 간 조절효과

가족건강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표 12>, 그래프는 [그림 4]와 같다.

가족건강성이 자기개발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성( $B=.067, p<.05$ )과 긍정성( $B=.064, p<.05$ ), 사회성( $B=.079, p<.05$ ) 모두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설명력은 통제성 43.6%, 긍정성 33.7%, 사회성 37.3%이다.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이 높아질수록 가족건강성이 자기개발역량에 미치는 양의 영향을 더 강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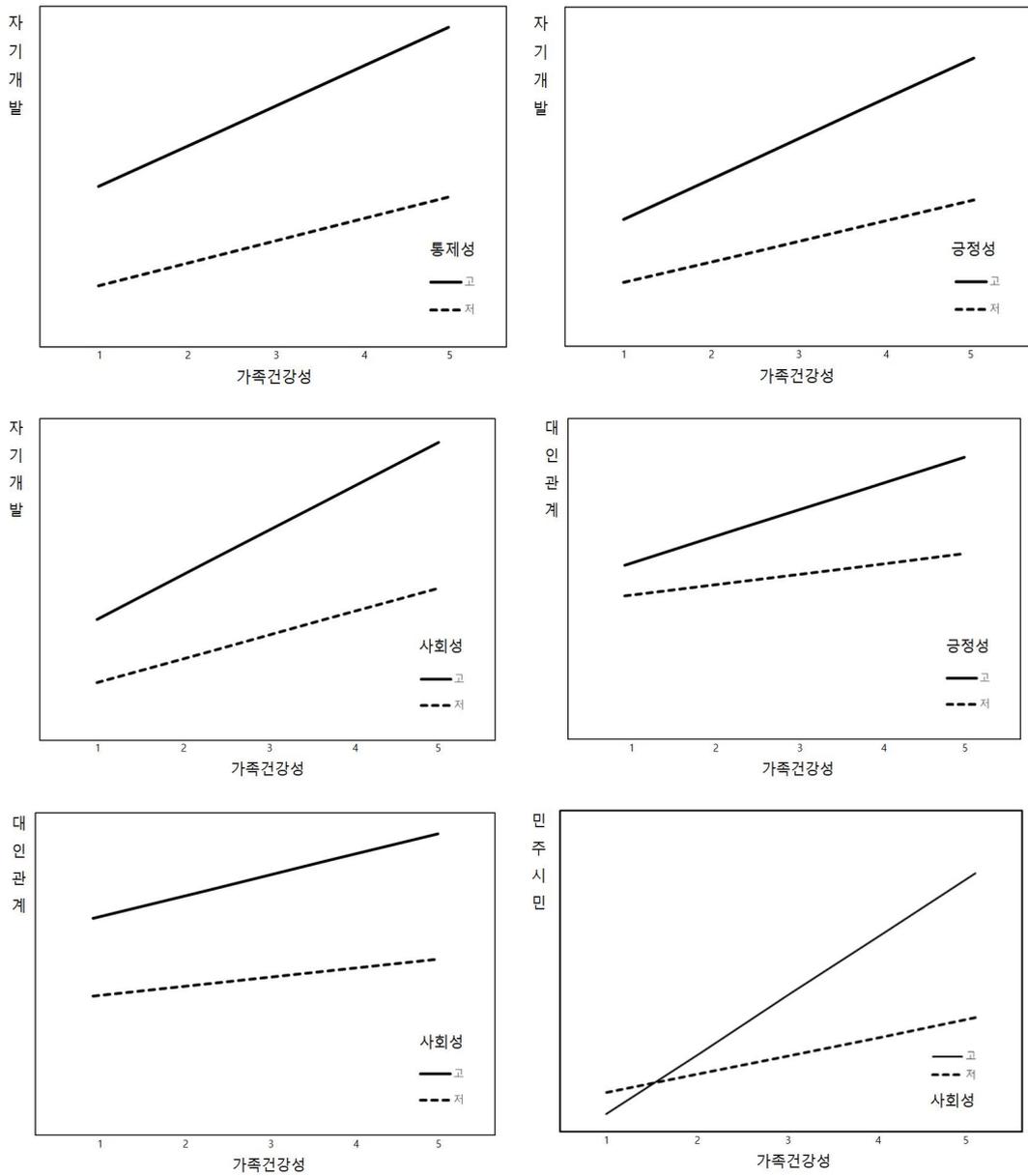
가족건강성이 대인관계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성( $B=.081, p<.05$ )과 사회성( $B=.057, p<.05$ )이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긍정성 31.6%, 사회성 49.8%이다. 긍정성과 사회성이 높아질수록 가족건강성이 대인관계 역량에 미치는 양의 영향을 더 강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족건강성이 민주시민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성( $B=.030, p<.05$ )이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8.3% 이다. 사회성이 높아질수록 가족건강성이 민주시민 역량에 미치는 양의 영향을 더 강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가족건강성-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의 조절효과

	자기조절	자기개발	학습	대인관계	민주시민	문제상황 대처
가족건강성(X)	.915***	1.142***	.832***	.838***	.722***	.720***
통제성(Mo)	1.214***	1.620***	1.135***	1.454***	.602***	.448***
<i>XMo</i>	.009	.067*	.016	.026	.012	.011
<i>R</i> <sup>2</sup>	.375	.436	.349	.439	.383	.336
<i>F</i>	26.754	34.478***	23.962***	34.983***	27.721***	22.621***
가족건강성(X)	.982***	1.128***	.790***	.918***	.643***	.727***
긍정성(Mo)	.683***	1.062***	.746***	.870***	.463***	.274***
<i>XMo</i>	.006	.064**	.010	.081**	.017	.007
<i>R</i> <sup>2</sup>	.271	.337	.274	.316	.346	.291
<i>F</i>	16.639***	22.733***	16.839***	20.620***	23.598***	18.365***
가족건강성(X)	1.296***	1.323***	.875***	.738***	.729***	.889***
사회성(Mo)	.574***	1.290***	1.023***	1.561***	.573***	.173**
<i>XMo</i>	.027	.079**	.020	.057**	.030*	.026
<i>R</i> <sup>2</sup>	.249	.373	.329	.498	.383	.272
<i>F</i>	14.845***	26.590***	21.937***	44.245***	27.720***	16.723***

$p^* < .05, p^{**} < .01, p^{***} < .001$



[그림 4] 가족건강성-회복탄력성 하위요인 간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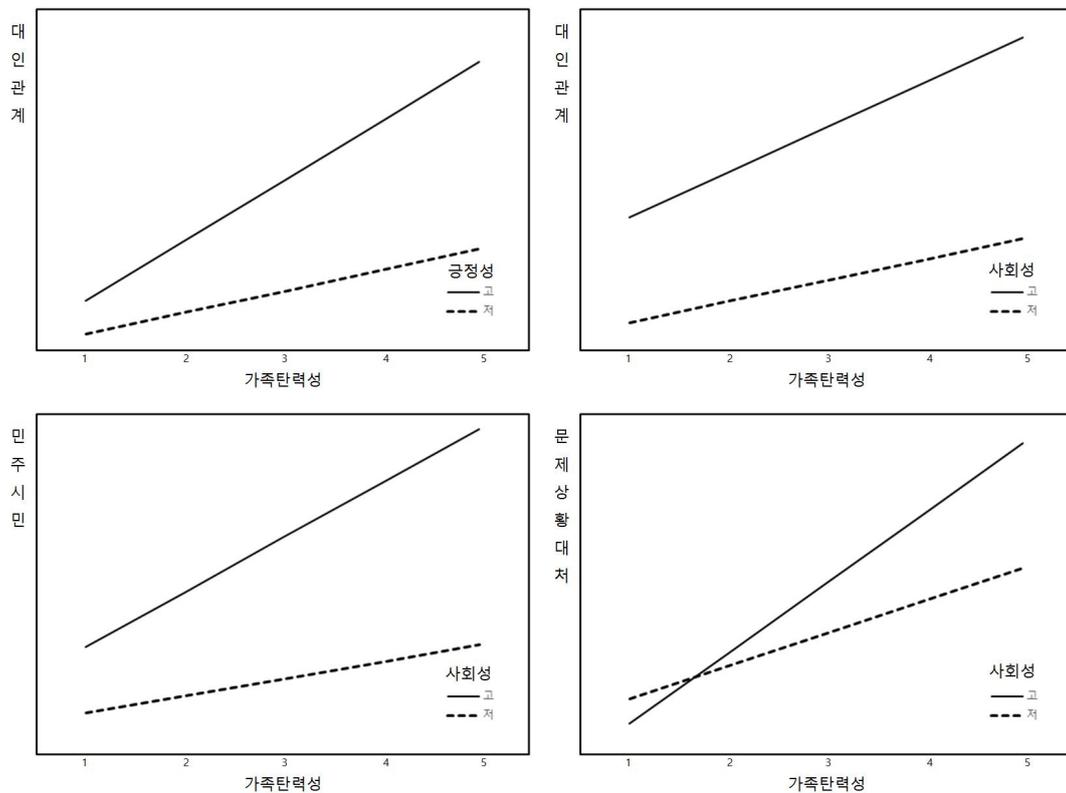
#### 다. 주요 변인의 하위요인 간 조절효과

가족건강성의 가족탄력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표 13>, 그래프는 [그림 5]와 같다.

<표 13> 가족건강성의 가족탄력성-회복탄력성 하위요인 간 조절효과

	자기조절	자기개발	학습	대인관계	민주시민	문제상황 대처
가족탄력성(X)	.246	.004	-.068	.218	.091	.177*
통제성(Mo)	1.237***	1.609***	1.122***	1.430***	.598***	.479***
XMo	-.000	.012	-.001	.015	.008	.006
R <sup>2</sup>	.385	.486	.381	.446	.387	.355
F	20.022***	30.245***	19.731***	25.802***	20.216***	17.577***
가족탄력성(X)	.346*	.141	-.002	.396**	.147	.212**
긍정성(Mo)	.736***	1.1146***	.775**	.852***	.465***	.309***
XMo	.010	.017	.001	.033**	.008	.004
R <sup>2</sup>	.286	.400	.315	.326	.350	.308
F	12.810***	21.294***	14.698***	15.491***	17.249***	14.216***
가족탄력성(X)	.357*	.160	.031	.376**	.164*	.235**
사회성(Mo)	.619***	1.322***	1.040***	1.564***	.578***	.204***
XMo	.015	.023	.006	.027*	.017*	.017*
R <sup>2</sup>	.262	.430	.367	.504	.389	.288
F	11.371***	24.155***	18.524***	32.542***	20.357***	12.920***

p < .05, p \*\* < .01, p \*\*\* < .001



[그림 5] 가족건강성의 가족탄력성-회복탄력성 하위요인 간 조절효과

가족건강성의 가족탄력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가족탄력성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성 ( $B=.033, p<.01$ )과 사회성( $B=.027, p<.05$ )이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긍정성 32.6%, 사회성 50.4%이다. 긍정성과 사회성이 높아질수록 가족탄력성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양의 영향을 더 강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탄력성이 민주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성( $B=.017, p<.05$ )이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8.9%이다. 사회성이 높아질수록 가족탄력성이 민주시민역량에 미치는 양의 영향을 더 강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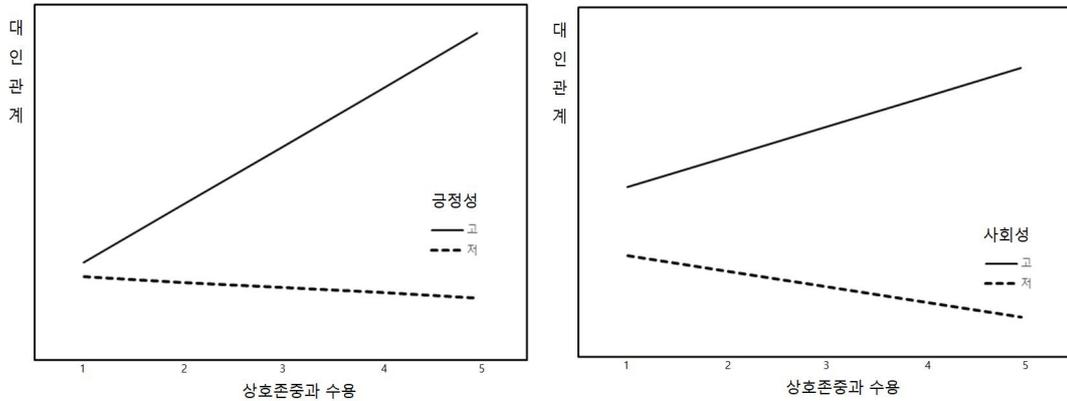
가족탄력성이 문제상황 대처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성( $B=.017, p<.05$ )이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8.8%이다. 사회성이 높아질수록 가족탄력성이 문제상황 대처역량에 미치는 양의 영향을 더 강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4> 가족건강성의 상호존중과 수용-회복탄력성 하위요인 간 조절효과

	자기조절	자기개발	학습	대인관계	민주시민	문제상황 대처
상호존중과수용( $X$ )	-.097	-.224	-.042	.203	.196	-.088
통제성( $Mo$ )	1.238***	1.604***	1.120***	1.429***	.597***	.479***
$XMo$	-.005	.039	.011	.007	.010	.005
$R^2$	.385	.488	.382	.445	.387	.354
$F$	20.027***	30.456***	19.755***	25.705***	20.187***	17.550***
상호존중과수용( $X$ )	-.162	-.436	-.223	.204	.081	-.126
긍정성( $Mo$ )	.731***	1.120***	.767***	.864***	.465***	.310***
$XMo$	-.009	.017	-.020	.043*	.002	.005
$R^2$	.285	.399	.316	.323	.348	.307
$F$	12.770***	21.202***	14.809***	15.244***	17.086***	14.207***
상호존중과수용( $X$ )	.087	-.244	-.151	.082	.166	.006
사회성( $Mo$ )	.621***	1.334***	1.038***	1.582***	.585***	.208***
$XMo$	.002	.031	-.009	.050**	.018	.010
$R^2$	.261	.430	.367	.507	.387	.283
$F$	11.290***	24.136***	18.529***	32.931***	20.163***	12.608***

$p<.05, p^{**}<.01, p^{***}<.001$

가족건강성의 상호존중과 수용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표 14>, 그래프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가족건강성의 상호존중과 수용-회복탄력성 하위요인 간 조절효과

상호존중과 수용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상호존중과 수용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성 ( $B=.043, p<.05$ )과 사회성 ( $B=.050, p<.01$ )이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긍정성 32.3%, 사회성 50.7%이다. 긍정성과 사회성이 높아질수록 상호존중과 수용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양의 영향을 더 강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건강성의 질적유대감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표 15>, 그래프는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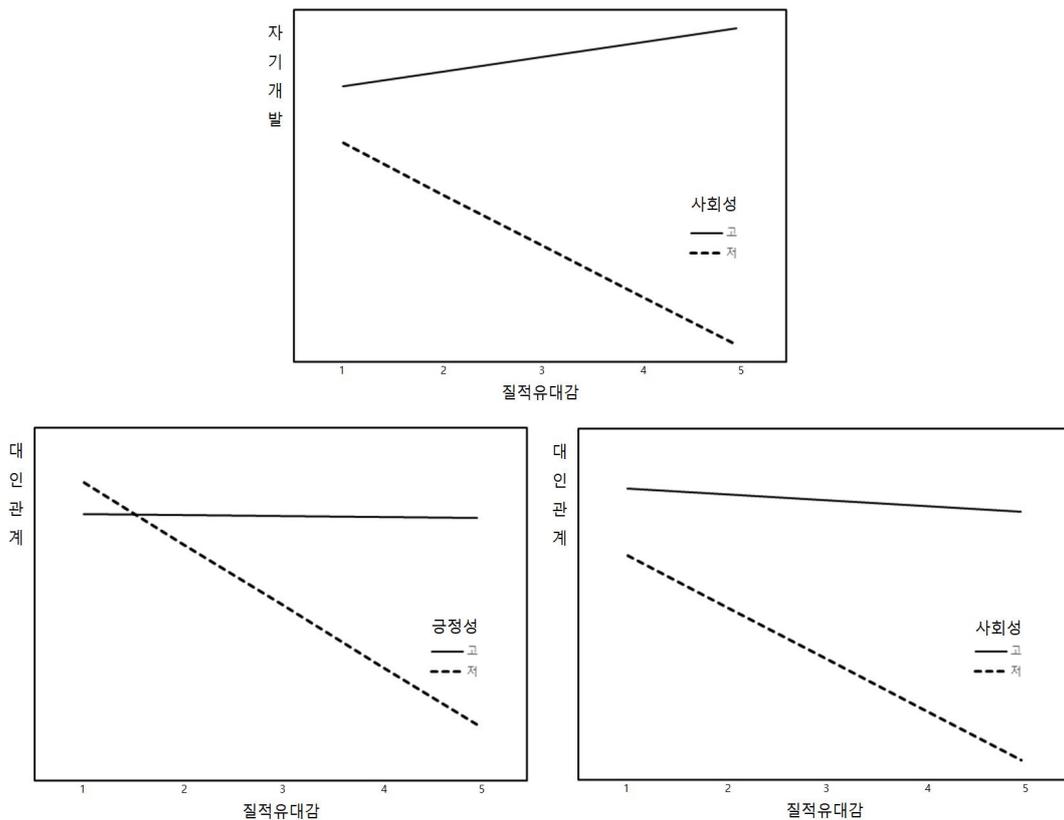
질적유대감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질적유대감이 자기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성 ( $B=.051, p<.05$ )이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3.2%이다. 질적유대감이 자기개발역량에 미치는 음의 영향을 사회성이 약화(완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적유대감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성 ( $B=.066, p<.001$ )과 사회성 ( $B=.050, p<.01$ )이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긍정성 33.0%, 사회성 50.6%이다. 긍정성과 사회성이 높아질수록 질적 유대감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음의 영향을 약화(완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 가족건강성의 질적유대감-회복탄력성 하위요인 간 조절효과

	자기조절	자기개발	학습	대인관계	민주시민	문제상황 대처
질적유대감( $X$ )	.287	-.016	.036	-.231	.134	.526***
통제성( $Mo$ )	1.238***	1.603***	1.121***	1.425***	.597***	.479***
$XMo$	-.004	.032	.003	.026	.006	.004
$R^2$	.385	.487	.381	.447	.386	.354
$F$	20.025***	30.370***	19.732***	25.836***	20.153***	17.543***
질적유대감( $X$ )	.120	-.219	-.116	-.389	.061	.467***
긍정성( $Mo$ )	.731***	1.131***	.773***	.878***	.471***	.313***
$XMo$	-.008	.037	-.003	.066***	.016	.009
$R^2$	.285	.401	.315	.330	.351	.308
$F$	12.766***	21.420***	14.700***	15.771***	17.295***	14.259***
질적유대감( $X$ )	.181	-.142	-.024	-.315	.096	.475***
사회성( $Mo$ )	.620***	1.322***	1.041***	1.564***	.579***	.205***
$XMo$	.007	.051*	.000	.050**	.019	.018
$R^2$	.261	.432	.366	.506	.386	.285
$F$	11.296***	24.377***	18.508***	32.776***	20.147***	12.732***

$p^* < .05$ ,  $p^{**} < .01$ ,  $p^{***} < .001$



[그림 7] 가족건강성의 질적유대감-회복탄력성 하위요인 간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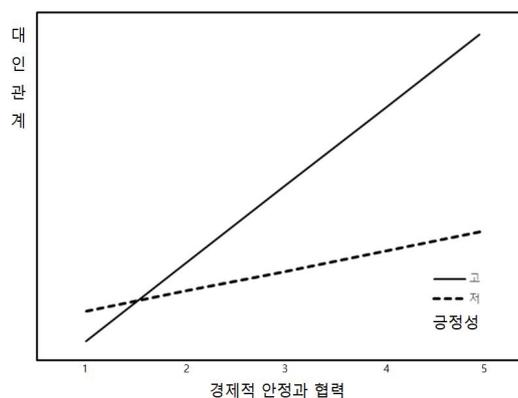
가족건강성의 경제적 안정과 협력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16>, 그래프는 [그림 8]과 같다.

경제적 안정과 협력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성( $B=.064, p<.05$ )이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2%이다. 긍정성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안정과 협력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양의 영향을 더 강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가족건강성의 경제적 안정과 협력-회복탄력성 하위요인 간 조절효과

	자기조절	자기개발	학습	대인관계	민주시민	문제상황 대처
경제적안정과 협력(X)	-.290	.645*	.542*	.524*	.052	-.140
통제성(Mo)	1.239***	1.615***	1.119***	1.434***	.599***	.481***
XMo	.013	.046	-.022	.033	.005	.016
R <sup>2</sup>	.385	.487	.382	.446	.386	.355
F	20.035***	30.337***	19.764***	5.784***	20.141***	17.590***
경제적안정과 협력(X)	-.189	.726*	.627*	.616*	.076	-.111
긍정성(Mo)	.734***	1.114***	.774***	.850***	.464***	.309***
XMo	-.009	.031	-.028	.064*	.012	.005
R <sup>2</sup>	.285	.398	.316	.320	.349	.307
F	12.756***	21.199***	14.766***	15.084***	17.124***	14.193***
경제적안정과 협력(X)	-.283	.432	.332	.198	-.046	-.117
사회성(Mo)	.618***	1.322***	1.043***	1.562***	.577***	.204***
XMo	.023	.022	-.027	.045	.027	.022
R <sup>2</sup>	.261	.428	.367	.502	.386	.283
F	11.319***	23.975***	18.570***	32.239***	20.098***	12.648***

$p<.05, p^{**}<.01, p^{***}<.001$



[그림 8] 가족건강성의 경제적 안정과 협력-회복탄력성 하위요인 간 조절효과

가족건강성의 가족문화와 사회참여가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표 17>, 그래프는 [그림 9]와 같다.

<표 17> 가족건강성의 가족문화와 사회참여-회복탄력성 하위요인 간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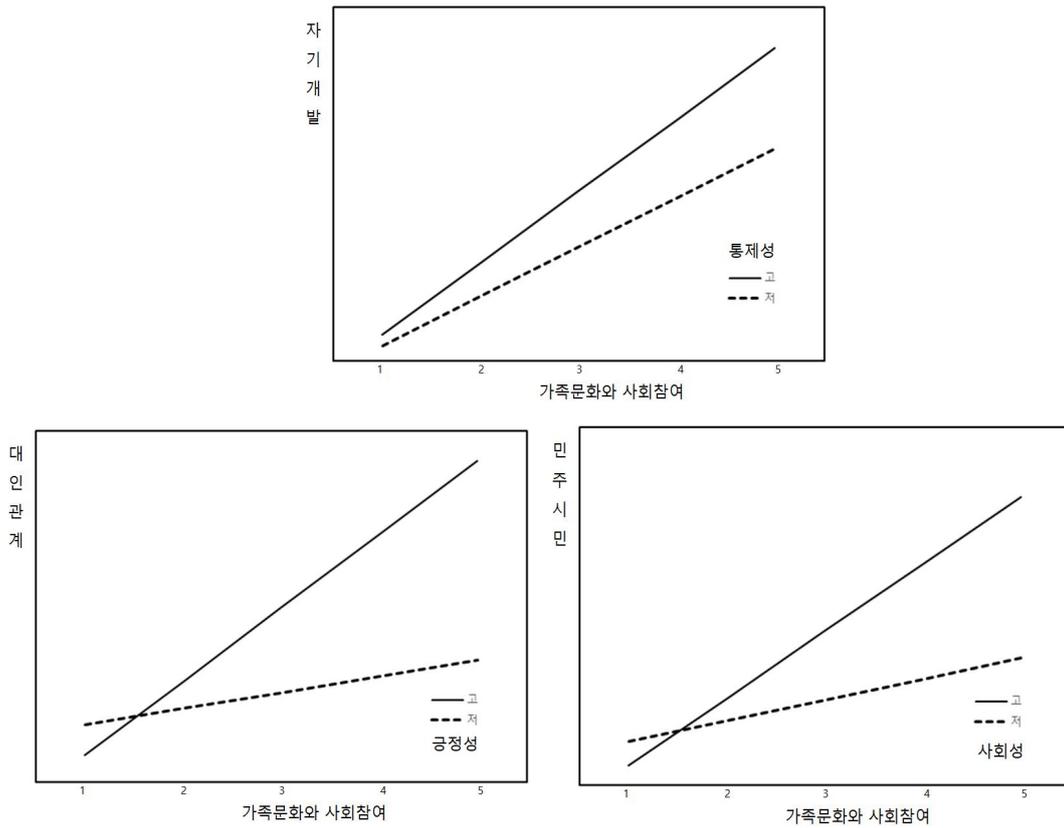
	자기조절	자기개발	학습	대인관계	민주시민	문제상황 대처
가족문화와사회참여(X)	.678**	1.898***	1.191***	.445	.334*	.008
통제성(Mo)	1.242***	1.622***	1.119***	1.435***	.602***	.483***
XMo	.028	.072*	-.015	.026	.023	.018
R <sup>2</sup>	.386	.489	.382	.446	.388	.355
F	20.092***	30.639***	19.750***	25.766***	20.278***	17.624
가족문화와사회참여(X)	.878**	2.081***	1.334***	.568*	.376**	.072
긍정성(Mo)	.734***	1.115***	.773***	.850***	.465***	.309***
XMo	-.014	.042	-.027	.064*	.026	.006
R <sup>2</sup>	.285	.399	.316	.321	.351	.307
F	12.769***	21.283***	14.771***	15.143***	17.310***	14.199***
가족문화와사회참여(X)	.924**	2.177***	1.378***	.661**	.411**	.093
사회성(Mo)	.616***	1.314***	1.041***	1.561***	.573***	.202***
XMo	.028	.071	-.003	.039	.043*	.029
R <sup>2</sup>	.262	.431	.366	.708	.389	.285
F	11.335***	24.283***	18.509***	32.187***	20.399***	12.725***

p\* < .05, p\*\* < .01, p\*\*\* < .001

가족문화와 사회참여가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가족문화와 사회참여가 자기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성(B=.072, p<.05)이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8.9%이다. 통제성이 높아질수록 가족문화와 사회참여가 자기개발역량에 미치는 양의 영향을 더 강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문화와 사회참여가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성(B=.064, p<.05)이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2.1%이다. 긍정성이 높아질수록 가족문화와 사회 참여가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양의 영향을 더 강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족문화와 사회참여가 민주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성(B=.043,  $p<.05$ )이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8.9%이다. 사회성이 높아질수록 가족문화와 사회 참여가 민주시민역량에 미치는 양의 영향을 더 강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가족건강성의 가족문화와 사회참여-회복탄력성 하위요인 간 조절효과

## V. 논의,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이 부모의 일반적 특성(종교 유무,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의 상관관계 및 변인 간의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족건강성이 청소년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생활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외적 환경요인인 가족건강성과 내적 심리요인인 회복탄력성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 및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도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아울러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의 심리 강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상담적 개입 방안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와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

첫째, 부모의 종교 유무에 따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족건강성 전체 및 하위요인에서 부모의 종교가 있을 때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의 종교가 있을 때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던 윤세은(2000)의 연구와 부모의 종교가 있을 때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던 배경의, 김은하(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가족관계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종교를 제시했던 Stinnett, Chesser & DeFrain(1979)와 Gallup(1979)의 주장과 부부가 함께 종교를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할 때 부부관계의 질이 향상된다(Booth, Johnson,

Branaman, Sica,1985; 어은주, 1996)는 연구, 부부 모두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고, 가족적응력 및 가족응집력이 높다(신영길, 2001)는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에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을 높일 수 있는 배경변인으로 부모의 종교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둘째, 부모 학력에 따른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족건강성 전체 및 하위요인 일부와 생활역량 전체 및 하위역량 모두에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을 보였고 회복탄력성은 차이가 없었다.

가족건강성에 대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던 많은 선행연구들(윤세은, 2000; 이현우, 2015, 강희경, 2005; 권대회, 2003; 김경령, 2001; 김혜민, 2011; 양남희, 홍은실, 2011; 윤세은, 2000; 임정아, 2005)과 흐름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가족건강성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부모의 학력이 청소년들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생활역량 변인과 관련한 연구 대부분이 집단 간 비교였기에 배경변인에 따른 생활역량 각 하위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자기조절역량은 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 때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이 높게 나타난 이현민(1998)과 김문신(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학습역량은 부모의 학력이 자기조절학습의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는 박동춘(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부모의 학력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김소진(2007)의 연구,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더 높게 나타난 김남주(2009)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볼 때,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생활역량 전반에 부모의 학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생활역량을 향상시키는 배경변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생활역량 전반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결과들을 검증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 나. 가족건강성, 생활역량,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

고등학교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 변인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가족건강성과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생활역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회복탄력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건강성과 생활역량 변인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조절역량에는 가족탄력성, 가족문화와 사회참여가 정적상관을 보이고 가족문화와 사회참여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자기개발역량에는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문화와 사회참여가 정적상관을 보이고 가족문화와 사회참여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학습역량에는 상호존중과 수용,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문화와 사회참여가 정적상관을 보이고 상호존중과 수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대인관계역량에는 상호존중과 수용,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문화와 사회참여가 정적상관을 보이고 상호존중과 수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민주시민역량에는 상호존중과 수용, 가족문화와 사회참여가 정적상관을 보이고 상호존중과 수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문제상황 대처역량에는 가족탄력성, 질적유대감이 정적상관을 보이고 질적유대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가족건강성이 생활역량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바, 가족건강성이 생활역량의 자기조절역량(라아영, 2016; 김정희, 2012; 유미희, 2010), 자기개발역량(이금자, 2015; 탁승현, 2012; 윤선영, 2015), 학습역량(임정아, 2005; 유윤덕, 2010; 신지은, 2014, 심정애, 2005; 오명희, 2007), 대인관계역량(김성원, 2015; 한영자, 2008; 안범희, 2010), 민주시민역량(조은경, 2014; 윤미경, 2007; 이정우, 김경아, 2007; 홍재화, 2005; 장소영, 2012; 김위정, 2012; 강가영, 2014), 문제상황대처역량(전명희, 2006; 이연미, 2009; 김경신, 김진희, 2003; 유영민, 2000; 박정은, 2001) 등 모든 하위역량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생활역량 향상을 위해 중요한 개인외적 환경변인으로 생활역량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의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회복탄력성과 생활역량 변인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조절역량에는 통제성, 긍정성이 정적상관을 보이고 통제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자기개발역량에는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이 정적상관을 보이고 통제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학습역량에는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이 정적상관을 보이고 통

제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대인관계역량에는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이 정적상관을 보이고 사회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민주시민역량에는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이 정적상관을 보이고 통제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문제상황 대처역량에는 통제성, 긍정성이 정적상관을 보이고 통제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회복탄력성이 생활역량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바, 회복탄력성이 생활역량의 자기조절역량(최상복, 2017; 김혜경, 2016; 이은경, 2017; 이현경, 2012), 자기개발역량(박지윤, 2017; 성동제, 2015; 최미정, 2016), 학습역량(이정숙, 2016; 정종철, 2013), 대인관계역량(임상희, 2016; 권지은, 2003), 민주시민역량(이수인, 2016; 이영민, 2018), 문제상황대처역량(박순영, 2013; 김영경, 2013; 김지연, 2017) 등 모든 하위역량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역량 향상을 위해 중요한 개인내적 심리변인으로 생활역량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의미할 수 있다.

가족건강성과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청소년의 생활역량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고 두 변인 중 회복탄력성이 생활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생활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기 가정환경 변인으로 가족건강성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과 개인의 심리 강점 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높여 청소년들의 생활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다. 가족건강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Hayes의 Process Macro를 이용한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주요 변인의 하위요인 간 어떠한 조절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족건강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더 강화시킨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건강성이 생활역량 하위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통제성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자기개발역량을 더 증대시키고, 긍정성이 높을수록 자기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을 더 증대시키며, 사회성이 높을수록 자기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민주시민역량을 더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인의 하위요인 간 조절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가족탄력성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는 긍정성이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대인관계역량을 더 증대시키고, 사회성이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대인관계역량, 민주시민역량, 문제상황대처역량을 더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존중과 수용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는 긍정성과 사회성이 높을수록 상호존중과 수용이 대인관계역량을 더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유대감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는 사회성이 높을수록 질적유대감이 자기개발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을 떨어뜨리는 수준을 완화시키고, 긍정성이 높을수록 질적유대감이 대인관계역량을 떨어뜨리는 수준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안정과 협력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는 긍정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안정과 협력이 대인관계역량을 더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문화와 사회참여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는 통제성이 높을수록 가족문화와 사회참여가 자기개발역량을 더 증대시키고, 긍정성이 높을수록 가족문화와 사회참여가 대인관계역량을 더 증대시키며, 사회성이 높을수록 가족문화와 사회 참여가 민주시민역량을 더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을 높이면 생활역량의 대인관계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결과는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이 높다는 박지윤(2017)의 연구결과와 위기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면 진로결정이나 성숙도를 높인다는 성동제(2015)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회복탄력성의 긍정성을 높이면 대인관계역량을 강화시키고 사회성을 높이면 대인관계역량과 민주시민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결과는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고 삶에 긍정적인 참여를 가능케 한다는 박새와(2012) 연구결과와 흐름을 같이한다. 또한 회복탄력성이 부정적 정서를 낮추거나 긍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주관적 안녕감을 높인다는 김세은(2014)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회복탄력성이 가족건강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의 생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이 생활역량의 6가지 하위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들이 기여하는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에 대해 부모가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부모의 종교는 가족건강성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학력은 가족건강성과 생활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배경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복탄력성은 부모의 종교나 학력에 영향을 받기보다 청소년 개인의 심리내적 특성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영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던 가족건강성과 생활역량에 대해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탐색을 통해 각 특성에 알맞은 개입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하고 대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둘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은 각 변인 및 하위요인 간에 높은 수준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가족건강성과 회복탄력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두 변인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가정환경 요인이 되는 가족건강성이 높아지면 청소년들의 생활역량이 높아지고 더불어 청소년의 심리 내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 또한 높이면 청소년들의 생활역량이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청소년기 성장에 가정변인 만큼이나 심리내적 강점으로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셋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생활역량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회복탄력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가족건강성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 특성에 따라 생활역량의 하위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가족 구성원 상호 간 정서적 유대감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는 배경이라면 청소년기 발달에 필요한 각 생활역량들이 수월하게 발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환경이라도 청소년의 심리내적 기능인 회복탄력성의 수준을 높이면 청소년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어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 회복탄력성, 생활역량의 차이 및 세 변인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 간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고 특히, 청소년 생활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자들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 전반적인 성장을 살필 수 있는 생활역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구자의 주된 관심사인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써 가정환경 요인으로 가족건강성과 청소년 개인의 심리 내적 기능으로 작용하는 회복탄력성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가족건강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인의 심리 내적 자원인 회복탄력성의 전체 및 각 하위요인별로 나타나는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생활역량을 약화시키거나 성장을 제한시키는 가족건강성의 낮은 원인을 파악하여 회복탄력성 전체 또는 각 하위요인을 증진 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생활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가정의 기능약화로 낮은 건강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생활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적 개입 방안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기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주도 지역에 소재하는 7개의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진행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 특성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제주도 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건강성과 회복탄력성, 청소년 생활역량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나타나는 경향들을 확인하고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일차적 환경인 가정 요인으로 가족건강성 변인을 선정하여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생활역량 함양은 청소년기 발달과정상 다양한 환경 변인들과 상호작용하며 개발되고 성장하는 필수적인 역량들이기에 가정 외에도 학교, 또래, 지역사회 등 청소년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변인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다. 회복탄력성 향상을 통해 생활역량 증진이 필요한 실질적인 대상은 삶의 다양한 문제 상황들에 노출되어 생활하는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로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 특성들을 비교하고 확장하여 이해의 폭이 넓혀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강가영 (2014).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이 아동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능력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본용, 금명자, 김동일, 김동민, 남상인, 안현의, 주영아, 한동구 (2005). 위기(가) 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
- 권대회 (200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대회·오윤자 (2004).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15-127.
- 권혜수, 조규필, 김범구, 허진석, 윤현선 (2008). 위기청소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두드림존 프로그램 특성화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권일남 (2011).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역량개발을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권지은 (2003). 부모 및 또래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 김진희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6(1), 15-25.
- 김남주 (2009). 중학생의 배경 변인별 스포츠활동 참여형태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신 (2012). 어머니의 정서 표현과 정서 표현 수용 태도가 아동의 자기 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애 (2011). 가족건강성과 또래관계 및 자기결정성 동기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원 (2015).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이 중학생의 자아정체성과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세은 (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우울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침례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진 (2007). **중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경 (2013).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및 도박행동과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4(1), 127-156.
- 김위정 (2012).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1): 201-222.
- 김유숙 (2014).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 김정운 (2016). **청소년용 가족기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변인으로**.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2017). **직장인의 일상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 연구: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1989). **부모-청소년 자녀 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 (2016). **자연놀이가 유아의 자기 조절력과 회복탄력성,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민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가족건강성과 사회적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신, 김경신 (2011).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부부의 가족건강성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59-86.
- 노경섭 (2016). **제대로 알고쓰는 논문 통계분석 SPSS&AMOS 21**. 서울: 한빛아카데미(주).
- 노현미, 박인전, 박영애 (1999). 유아 및 가족배경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 **한국가족복지학회**, 4(2), 191-215.
- 라아영 (2016). **중학생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새롬 (2016).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상태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

- 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경의, 김은하 (2007).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건강성, 가족 기능, 자아정체감과 우울과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13(3), 357-366.
- 배병렬 (2015). SPSS/Amos/LISREL/SmartPLS에 의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분석. 서울: 도서출판 청람.
- 반기완 (2015). 청소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에 관한 연구; 일반청소년과 문제행동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동춘 (2007).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새와 (2012).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희망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영 (1995).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응집성 및 응집성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영 (2013).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 및 영향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윤 (2017).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관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혜 (2011). 결손가정 청소년의 탄력성, 낙관성, 긍정적 환상과 심리사회적응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동제 (2015). 위기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과 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경희 (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 송미경 (2017). 초기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이차적 분노사고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성자 (1996).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욕구와 단기가족치료의 접근. *연세사회복*

- 지연구, 3, 77-102.
- 신선아 (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위기요인이 진로의식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신지은 (2014). **가족건강성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은경 (2010). **일반청소년과 청소년운영위원의 생활역량 비교분석**.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정애 (2005). **가정환경과 자아개념 및 학습동기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영길 (2001). **부부의 종교활동 참여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2014).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자기애성향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은경 (2011). **일반청소년과 청소년운영위원의 생활역량 비교분석**.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범희 (2010). **대인관계론**. 서울: 태영출판사.
- 안선영 (2016). **사회적지지 및 회복탄력성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영자 (2008).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분화가 역기능행동 및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남희, 하운주 (2008). 고등학생들의 가족건강성의 영향변인. **한국가정과학회지**, 11(1), 63-69.
- 양남희, 홍은실 (2011).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3(4), 143-157.
- 양순미, 유영주 (2003).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9), 121-134.
- 양영문 (2016).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 공감능력 및 행복감에 관한 연**

- 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은주, 유영주 (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 어은주 (1996). **한국 도시 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 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명희 (2007).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청소년 학습동기의 차이**.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지윤 (1999).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이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들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계숙 (2004). **건강가족의 요소에 관한 연구-가족체계와 건강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25-42.
- 유미희 (2010).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아동의 자아개념과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세은 (2000).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서울시 남녀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영주 (2001). **건강가족연구**. 파주: 교문사.
- 유영주 (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유영주, 이인수, 김순기, 최희진 (2013). **한국형 가족건강성척도Ⅱ 개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113-129.
- 유윤덕 (2010).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기효능감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란 (2004).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변인, 스트레스 변인 및 대처방식**.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명희, 김진화 (2008). **청소년의 생활역량 진단척도 개발과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효과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9(2), 173-197.
- 윤명희, 서희정 (2013). **청소년 생활역량**. 집문당. 아산재단연구총서 제339집.
- 윤명희, 서희정, 김경희, 조은정 (2015). **청소년 생활역량 진단검사의 표준화 연**

- 구. *교육평가연구*, 28(2), 401-425.
- 윤미경 (2007). *고등학생의 민주 시민 의식에 관한 연구: 수원시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선영 (2015). *중학생의 가족건강성, 창의적 인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민 (2000).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보호위원회.
- 이국화 (2012).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자 (2015). *중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정서조절능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 (2009). *청소년 생활역량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림 (1987).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인 (2017). *보육교사의 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한 회복탄력성 경험 탐구*. 배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미 (2009). *가족건강성과 청소년의 또래동조성 및 휴대폰 중독*.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민 (2018). *보호관찰청소년의 시민성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옥실 (2009). *청소년의 위기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특성에 대한 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17). *포천지역 중학생의 학습된 무기력과 회복탄력성의 관계*.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일현 (2016). *EasyFlow 회귀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이정숙 (2016).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우, 김경아 (2002).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와 가정생활건강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6(2), 79-95.

- 이정자 (2017). **학교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역량 비교**. 동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중강 (2004). **어머니 및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생활능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민, 나중혜 (2005).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의 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 14(6), 937-945.
- 이해리, 조학익 (2005).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16(2), 161-206.
- 이현정 (2017). **대학생이 지각하는 심리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경 (2012). **지각된 부모의 공감능력이 후기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민 (1998).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태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우 (2015).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자기개념명확성과 진로태도성숙간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상희 (2005).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선미 (2016). **정서표현과 회복탄력성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아 (2005). **청소년기의 가족 성장과 학교 적응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소영 (2012).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이 초기 청소년의 행복감과 공동체의식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아름 (2008).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생활역량 비교분석**.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명희 (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가족건강성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학열 (2011). **청소년위험행동의 보호요인과 위험행동의 다차원성 모형검증-**

- 희망 및 생활역량, 충동성, 감각추구성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은주 (2017). 청소년 회복탄력성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초당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미라 (2015).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과 자아개념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영 (2010).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따른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생활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경 (2014). 초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민주시민의식 간의 관계-학교행복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상복 (2017). 배구선수들의 자기조절과 협력적 자기조절이 회복탄력성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미숙 (2013).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희망, 또래관계기술 및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미정 (2016). 일터영성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과 내재적 동기의 매개 효과 검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은지 (2014). 탄력성의 국내 연구 동향: 가족탄력성과 학교적응유연성을 포함하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탁승현 (2012).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 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영숙 (2006).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문제 간의 관계 연구: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윤영 (2012). 부모상실감을 경험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만족도의 관계: 한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영희 (2013). 사회복지사의 회복탄력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숙 (2006). 탄력성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2), 45~67.

홍재화 (2005). 초등학교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부모의 양육 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ndrew F. Hayes. (2013).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분석·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이형권 역). 경기: (주)신영사.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A.Colloness(Ed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Block, J., & Gjerde, P. E. (1990). Depressive symptoms in late adolescence: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personality antecedents. In I.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334-36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Frain. J. (2002). Global perspective on strong family. *Building Family Strengths Intervention Int. Journal of Family Counselling*, 29, 116-127.

Erikson, E. H. (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Association*, 4, 56-121.

Garmezy, N. (1983). Stressors of childhood. In N. Garmezy & M.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43-85). New York: McGraw-Hill.

Goelthals, W. S., & Kurowski, C. O., & Gurl, S. T. (1999). Family processes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elf-regul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34(1), 3-1.

Luthar, S. S. (1996). Resilience: A construct of value? *Paper presented at the 104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Luthar, S. S., & Cicchetti, D.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and social policies. *Development and Psychology*, 12(4), 857-885.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227-238.
- Olson, D. H. & DeFrain. J. (2003). *Marriages and families: Intimacy diversity, and strengths*. NY: McGraw-Hill College.
- Otto, H. A. (1975). *The use of family strenght concept and methods on family life education: A handbook*, Beverly Hills, California : Holistic press.
- Stinnett, N., Chesser, B. & DeFrain, J.(Eds.) (1979). *Building family strengths; Blueprints for action*. Lincon ; Univ. of Nebraska Press.

<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Family Strength of  
High School Students Influencing Adolescents Life  
Competency**

Choi Seung Ho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 Park, Jung 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 one of the important exter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life competency indispensable i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adolescent, and resilience, an internal and personal factor and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therein. Furthermore, this study is aimed to increa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family as a base for growth and development of adolescents, and provide basic materials in devising and developing adolescent counselling programs designed to enhance resilience of adolescents, which can be used as psychological resources for adolescents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counselling.

In order to address this research objective, the questionnaire method was employed targeting high schoolers in 7 schools in Jeju self-governing province. The initial number of the questionnaire copies was 845 with the resulting collection of 792 copies(93.7% of return rate). Of all these data, the

final relevant data of 705 copies(final relevance rate of 89.0%) was processed with exclusion of 87 copies assumed as non response or insincere.

In order to measure family strength was applied Korea Family Strengths Scale II, which was originally developed by You, Yeong-Joo(2004) and later revised and downsized by You, Yeong\_Joo et al(2013). Youth Korea Resilience Quotient-27(YKRQ-27), developed by Shin, Woo-Yeol et el(2009) targeting Korean adolescents, was utilized for the purpose of measuring resilience. The diagnostic check questionnaire consisting of 114 questions was employed in order to measure life competence of adolescents. The questionnaire downsized by Yoon, Myung-Hee et al(2015) was extracted, based on statistical and content analysis, from the original diagnostic check questionnaire of 228 questions, which was developed by Yoon, Myung-Hee·Seo, Jeong-Hee(2013), then verified as maintaining validity.

The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through a statistical program of SPSS 24.0. In order to check out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data, frequency analysis was applied. The models of t-test and ANOVA was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among group means between family strength, resilience and adolescent's life competence. In case tha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detected, it was analyzed by the post-hoc analysis method of Scheffe. Welch's t-test was used when the two samples have unequal variance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as computed for identifying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Lastly, in order to verify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family strength affects adolescent's life competence, Process macro 3.0 by Hayes was applied with practice of random sampling with replacement called "Bootstrapping".

The summarized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ree variables of high schooler's family strength, resilience and life competency, the variable of religious status recorded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respect to family strength including its sub-factors. The variable of parents' academic background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respect to family strength and life competency including its sub-factors.

Second, highly significant and positive correlation were verified between three variables and their sub-factors of high schooler's family strength, resilience and life competency. It was also verified that two variables of family strength and resilience had significant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regard to their effect on life competence.

Third, with respect to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ers' family strength and life competency, it was verified that resilience functions as moderator variable that affects the strength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 and life competency.

All these research results considered together, this study confirmed the correlation and inter-relationship between three variables of high schoolers' family strength, resilience and life competency. Especially,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adolescents' life competency has been given more attention than ever with its related research animated, this study can be used as specific information provider on adolescent's life competency, an indicator of adolescent's general growth. Furthermore, based on the result that resilience, a psychological resource, together with its sub-variables of control, positivity and sociality, has moderating func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 and life competency, it can result hopefully in improving life competency of adolescents to enhance resilience of adolescence whose life competency has been weakened or restrained by lower family strength. Likewise, I hope this study will be applied as basic material for developing or establishing counselling programs designed to enhance adolescent's life competency, which ultimately will lead to help adolescents grow up in a more favorable environment.

Key words: High schooler, adolescents, family strength, resilience, life competency, competency, moderating effect

<부 록>

# 설 문 지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설문조사는 가족건강성과 청소년 생활역량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각 질문에 대해, 평소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숫자상으로 통계 처리되고 순수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므로 익명으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 응답요령(검사시간: 약 15분 내외)

1. 평소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문항에 해당하는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각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정환

연구자: 최승호

E-mail: [happymaker@jejunu.ac.kr](mailto:happymaker@jejunu.ac.kr)

본인은 위의 내용을 잘 이해하였으며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무기명 사인: \_\_\_\_\_

1. 다음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같거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하세요.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방안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챈다.	①	②	③	④	⑤
6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감정을 잘 통제(제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떠한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아무리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9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고맙게 여기는 것들을 모두 적는다면, 아주 긴 목록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세상을 둘러볼 때, 내가 고마워 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다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1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가 별로 없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재치 있는 농담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적절한 문구나 단어를 잘 찾아낸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사람들의 얼굴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동료가 화를 낼 경우 나는 그 이유를 꽤 잘 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 문항에 대해 자신의 가족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가족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서로 터놓고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은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먹고 살만한 수입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가족은 함께 하는 활동(외식, 여가, 취미생활 등)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가족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가족만의 전통과 문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가족은 자기 입장을 표현한 기회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가족은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가족은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가족은 서로 잘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가족은 서로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가족은 사회활동(봉사, 모임 등)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가족은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가족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가족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가족은 여가와 문화생활을 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우리 가족은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I-1. 다음 문항에 대해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주변사람들은 나에게 감정기복이 심하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기쁘거나 슬플 때 내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주변사람들은 내가 화를 낼 때 지나치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화가 났을 때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 등의 행동으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야단을 맞을 때 그 자리에서 곧바로 말대꾸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친구와 싸우거나 문제가 있을 때 화를 참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밥보다 군것질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꼭 챙겨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식사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을 자주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하루 일과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급하거나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하여 시간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시간 관리를 위해 핸드폰이나, 다이어리 등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정해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생활했는지 되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용돈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예상하지 않았던 용돈이 생겨도 계획을 세워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계획 세운대로 용돈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용돈사용을 기록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용돈을 잘 사용했는지 잘못 사용했는지 검토한다.	①	②	③	④	⑤

III-2. 다음 문항에 대해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남이 하는 것을 따라 하기보다 내가 생각해낸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새로운 정보나 방법을 빨리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생각한 것을 잘 표현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학교에서 배웠거나 알고 있었던 것을 생활 속에 적용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더 나은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았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매일(매주) 해야 할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목표설정 시 실천할 행동도 같이 계획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목표달성을 위해 우선순위를 세워 실천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목표달성을 위해 세운 계획은 곧바로 실천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세운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가 어떤 일에 흥미가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나의 적성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적성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진학하고 싶은 학교나 학과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진로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후의 결과까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시간을 갖고 주의 깊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히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들의 장단점을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정보가 실천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내가 내린 의사결정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점검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III-3. 다음 문항에 대해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목차나 내용의 흐름을 미리 훑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글을 읽을 때 어려운 낱말이나 내용의 뜻풀이를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읽은 내용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 보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해야 할 과제의 중요한 순서를 정해 놓고 그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과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과제를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과제를 끝낸 후에 다시 검토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보를 모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과제 해결을 위해 매체(교과서, 참고서, 인터넷, 신문 등)를 활용하여 정보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수집한 다양한 정보들을 특징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과제를 할 때 필요한 글, 그림, 음악 등의 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인터넷, 파워포인트, 워드프로세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책이나 공책에 정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때그때 확실히 알고 넘어간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발표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선생님이 정한 기간에 맞춰 과제를 제출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학습준비물을 꼬박꼬박 챙겨온다.	①	②	③	④	⑤

III-4. 다음 문항에 대해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화중에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상대방이 말할 때 시선을 맞추며 이야기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대답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하고 싶은 말을 쉽고 분명하게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대화할 때 표정과 몸짓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감정에 치우치거나 당황하지 않고 나의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친구와의 비밀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들의 느낌, 생각, 바라는 것을 잘 알아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필요시 처음 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건넨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와 비판을 잘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의 관심거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잘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친구와 나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친구와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같이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친구와 생각이 다를 때 나의 의견을 이해하도록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모든 일에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집단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집단구성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단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집단으로 일을 할 때 서로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집단으로 일을 할 때 각 구성원이 해야 할 일을 적절히 나누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소외되고 있는 친구를 집단 활동에 참여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III-5. 다음 문항에 대해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족 간에 정한 약속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귀가 시간이 늦을 때는 가족에게 전화하여 행선지를 밝힌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학교나 학급의 규칙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를 만나면 먼저 인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공공장소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공공장소에서 주위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우리 지역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캠페인 참여, 서명운동, 청소 등)을 실천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학교나 학급행사와 관련된 결정을 할 때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학교나 학급 활동 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학급에서 동의된 의견이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III-6. 다음 문항에 대해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인터넷이나 TV 사용시 시간을 정해 놓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해야 할 일을 끝낸 후에 인터넷이나 TV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공부할 때 휴대폰을 꺼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있을 때도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인터넷 사용이나 TV시청을 줄이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인터넷 사용이나 TV시청을 줄이기 위해 독서, 운동 등 취미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파는 곳을 발견하면 신고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친구가 흡연·음주·약물을 한다면 하지 않도록 설득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친구가 흥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른에게 알려 위험을 예방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폭력이 발생했을 때 친구나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란영상물, 성인만화 등을 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